

인천정명600년기념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❷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변화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2013년 인천정명600년, 인천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



역사는 두 번 반복된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록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이 언젠가 ‘과거’가 되었을 때, 과거의 기록을 살핌으로써 반복되어서는 안 될 일을 미리 발견하고 지혜를 모아 대처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러한 ‘기록의 중요성’을 일찍이 깨닫고 세계 최고의 기록유산을 우리에게 남겨준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6월, 난중일기와 새마을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면서 총 11개의 세계기록유산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앞서 등재된 기록유산은 ‘훈민정음’, ‘조선왕조실록’, ‘직지심체요절’, ‘승정원일기’, ‘조선왕조 의궤’, ‘해인사 대장경판 및 제경판’, ‘동의보감’, ‘5·18민주화운동 기록물’, ‘일성록’의 9건입니다. 역사 속의 많은 기록들이 소실되기도 했고, 외부 세력에 의해 왜곡되는 일도 있었지만, 어떤 상황에서도 기록을 하려는 노력, 그것을 지켜내려는 노력이 지금의 우리에게 소중한 유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시는 1965년 시사편찬위원회를 구성한 이래 1973년 제1차 시사 편찬사업을 시작으로 약 10년을 주기로 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인천광역시사』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 ‘비류 백제 2000년, 인천정명 600년, 근대 개항 130년’을 맞은 이 뜻 깊은 해에 그 5번째 편찬을 완료했습니다. 그동안 시사편찬의 토대가 되는 각종 문헌자료를 발굴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위해 애써주신 편찬위원 여러분과 도움을 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선5기 인천광역시시는 우리시의 역사와 기록문화를 소중히 여기며, 연구와 배포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노력의 성과가 얼

마 전 지방자치단체 ‘최초’ 역사연구재단인 강화고려역사재단 설립, 대한민국 최초로 유네스코 지정 ‘2015년 세계 책의 수도’ 선정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와 기록이 단순히 지나간 과거가 아니라, 오늘의 시대를 읽는 거울이자, 미래를 향해 나아갈 바탕이라는 신념에서 출발한 일입니다.

특히, 아시아 최초 UN본부인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입주 등을 통해 국제도시로서 나날이 발전해나가는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역사에 대한 깊은 이해와 이를 토대로 미래로 성장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번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가 이러한 때에 든든한 다짐돌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무엇보다, 발간에 열정을 기울여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와 경의를 표하며, 『인천광역시사』가 인천을 알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인천을 이해할 수 있는 기본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인천광역시시는 시사의 증보는 물론 시 역사와 관련된 다양한 사료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기록하는 사업을 꾸준히 펼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인 천 광 역 시 장

인천광역시사편찬위원회 위원장

송 영 길

축 간 사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600년기념 『인천광역시사』 발간을 축하하며……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성만입니다.

탐스러운 과실이 무르익어가는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 미추홀 2000년, 인천정명 600주년을 기념하는 2013년 『인천광역시사』의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지난 2000년의 세월 동안 올해만큼 우리 인천이 약진했던 시기는 없었습니다. 극적으로 유치한 미래 UN의 핵심기구인 녹색기후기금(GCF)이 송도에 입주하면서 대한민국 국제·환경 비즈니스의 중심축이 인천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에는 30억 아시아인의 축제인 2014 아시아경기대회가 인천 전역에서 개최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천은 연비어약(鸞飛魚躍)하고 있습니다. 투자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분야는 서울을 제외한 전국 시도에서 1등을 기록하였고,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전국 8개 자유구역 중 3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지금까지의 600년이 도약을 위한 오랜 인고의 세월이었다면 앞으로의 인천 600년은 찬란한 번영의 시대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위대한 역사의 전환점에 우리가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번 『인천광역시사』와 『사진으로 보는 인천시사』의 편찬은 새로운 전기를 맞고 있는 인천의 역동성을 후세에 남기는 매우 뜻 깊은 작업으로, 우리들의 의무이자 당연한 권리입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3년간 인천에 대한 애정으로 작업에 몰두해 주신 43명의 집필위원 및 편찬 관련자 여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인천의 무궁한 발전과 291만 인천 시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0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이 성 만

일러두기

-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제2권은 1945년 광복 이후에서 2013년 현재까지 인천지역사회의 역사적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변화』라는 주제 속에 소항목을 두고 그 변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 제2권의 전반부는 <전진을 위한 심 없는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1945~1995)라는 주제로 3가지 세부항목, <1. 광복 후 정치 사회변동>, <2. 경제 부흥과 기반시설의 확충>, <3. 서민 문화시설의 확대>를 통해 격동기의 인천 변화상을 살펴보았다.
- 제2권의 후반부는 <동북아의 중심도시, 새로운 도약>(1995~2013)이라는 주제로 <1. 광역시 승격>, <2. 글로벌 도시를 향해>, <3. 문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4. 도시재생과 신도시 건설> 등 4가지 항목을 두고 광역시 이후 최근 20년간 인천의 다양한 변화를 사진과 함께 정리하였다.
- 이러한 변화를 보다 가시화하기 위해 별도로 <지형의 변화와 지도로 보는 인천>이라는 주제로 근대 개항 이후부터 광역시에 이르기까지 매립을 통한 인천 지형도의 변천을 지도와 함께 시기적으로 요약 정리하였다.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 변화(1945~2013)

개관 : 인천시에서 광역시로의 도약과 발전 001

전진을 위한 씬 없는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1945~1995)

1. 광복 후 정치 사회변동 005

- 미군정기, 초대의회
-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
- 정치 사회 이모저모

2. 경제부흥과 기반시설의 확충 053

- 경인고속도로의 건설
- 철도, 항구, 공단
- 산업시설
- 지하도, 운교, 육교, 다리
- 도로
- 주택건설
- 건축
- 행정 이모저모
- 교통

3. 서민 문화시설의 확대 095

- 서민 생활의 이모저모
 - ◆ 보건, 복지
 - ◆ 농어촌 개선
 - ◆ 문화, 체육
 - ◆ 생활개선
 - ◆ 시민의 날
 - ◆ 도시풍경

동북아의 중심도시, 새로운 도약(1995~2013)

1. 광역시 승격 129

- 영역의 확대
- 항구
- 공항
- 지하철, 공항철도
- 터널, 교량
- 시가지

2. 글로벌 도시를 향해 177

-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
- 인천해양축제
-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 세계도시축전
- 인천대교 걷기대회
- 전국 차인(茶人) 큰 잔치
- 다문화국가 페스티벌
- 풍물대축제
- 소래포구축제
- 화도진축제
- 강화 개천대제
- 아태도시정상회의 개최
- 세계모의유엔총회 개최
- 자매 우호도시 정상회의 개최
- 국제녹색기후기금 사무국 유치

3. 문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215

- 체육시설, 경기대회
- 대학, 도서관, 박물관
 - ◆ 제물포 인천대학교와 송도캠퍼스시대 개막
 - ◆ 한국이민사박물관
 - ◆ 미추홀도서관
 - ◆ 개항박물관
 - ◆ 짜장면 박물관
 - ◆ 소래역사관
-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모저모
- 문화공간

4. 도시 재생과 신도시 건설 247

- 인천시 청사와 구월동 주변
- 인천교 매립
- 화도진공원
- 북성동과 현재의 차이나타운
- 송현동 수도국산 주변과 달동네박물관
- 송의운동장과 송의아레나
- 동아매립지와 청라국제도시
- 소래포구와 수인선
- 서구 검암지구 개발
- 경인아라뱃길
- 영종하늘도시
- 송도국제도시

지형의 변화와 지도로 보는 인천 295

인천시에서 광역시로의 도약과 발전

광복 후 한동안 우리나라는 다양한 성향의 정치세력들이 난립하여 혼란을 거듭하였다. 미군이 가장 일찍 진주하였다는 인천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미군정(美軍政)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1948.8.15) 미군정 때 잠시 제물포시(1945.10.10~27)로 바뀌었던 인천부도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로 정립되었고(1949.8.15), 시의회도 구성되었으며 시장 또한 간선으로 선출되었다(1952).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일본의 잔재와 미군정의 과도기적 조치들이 하나하나 청산되고 일신되어 갔고,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속속 마련되었다.

그러나 1950년 발발한 6·25전쟁은 인천지역에 다시 한번 시련을 주었다. 인명의 피해나 주민간의 갈등에서도 그러하였지만, 일본이 남겨 놓고 간 공장과 시설로나마 가까스로 일구어 가던 경제가 거의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다. 더구나 인천상륙작전의 생생한 현장이 되었고, 휴전(1953.7.23) 후 20여 만명의 이북 피난민까지 수용했던 인천지역사회는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해야 하였다.

인천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7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거듭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임해공단들과 부평공단(경인공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수출 위주로 전개되면서 이를 위한 각종 기간시설의 확충과 편의시설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 인천 내항의 도크 확장(1966~1975), 그에 따른 연안부두의 축조(1973), 경인고속도로의 건설(1967~1968), 경인전철의 부설(1971~1974) 등이 바로 그러하였다.

인천지역의 이러한 성장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산업

을 발달하게 하고 아울러 인구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인천시가 구제(區制)를 실시하던 당시(1968), 서울·부산·대구에 이어 4대 도시로 성장하면서, 지속된 경제발전은 인천시의 산업과 사회를 더욱 성장시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여 인천직할시로 승격하게 하였다(1981). 그리고 나아가서는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와 중국의 개방화 정책으로 인천지역의 지정학적 비중이 더욱 높아지자 1961년에 폐지된 지방자치제의 부활(1991)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로 확장·승격되기에(1995. 3.1) 이르렀다.

현재 인천은 동북아시아의 중심도시로 세계를 향해 웅비하고 있다. 서울의 관문으로서 항만, 상업도시를 이루어 온 원인천에다가 농공업도시 부평을 아우르고, 이어 농수산물 문화, 관광의 보고(寶庫) 강화와 옹진 등을 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허브(Hub) 공항을 더하여,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거대한 관문이자 국제적 물류중심지, 산업·정보단지, 관광·휴양단지로 비약적인 성장을 기하고 있다. 최근에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을 송도경제특구에 유치함으로써 지난날의 인천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국제도시로 변화하고 있다. 여기에 송도경제자유구역, 청라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의 기반조성과 제17회 인천아시안게임(2014) 개최라는 도전적 과제들도 있다.

오늘날 인천이 이같이 성장·변모하게 된 데에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가 근래에 이룩한 경제적 정치적 성장과 뒤이어 이루어진 환(環)황해권의 개방화가 인천지역의 지정학적 특성과 맞물린 때문이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지난 날 오랜 세월에 걸쳐 인천지역사회에 쌓여 온 역사적 토양에 기반한 바도 간과할 수 없다.

전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1945~1995)

1. 광복 후 정치 사회변동

전진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
(1945~1995)

1. 광복 후 정치 사회변동

광복 후 한동안 다양한 성향의 정치세력들이 난립하여 혼란을 거듭하였다.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당시 남한의 미군정 책임자는 하지 중장이었고, 인천의 미군정관은 스틸맨 소령이었다. 스틸맨은 1945년 11월 중순 쯤, 인천경찰서의 각 부서와 책임자들을 선임했는데, 한민당을 비롯한 우익 인사들과 일제 경찰출신들이 주로 포진하게 되었다. 미군정과 인천경찰서가 완비되면서 본격적인 식민 청산이 이루어지게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1945년 11월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 환영위원회 개최와 12월 신탁통치 문제 등으로 좌우익의 갈등이 부각되었고 인천 지역의 정치세력도 좌우익으로 확연하게 분리되었다.



광복과 시민들



신탁통치 반대 데모



종양청에 게양되고 있는 태극기



미군정 장관 하지 중장 인천시민에게 연설

미군정기, 초대 의회

미군정을 거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미군정 때 잠시 제물포시로 바뀌었던 인천부도 1949년 지방자치법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로 정립되었고, 시의회도 구성되었으며 시장 또한 간선(間選)으로 선출되었다(1952). 그리고 이들에 의하여 일본의 잔재와 미군정의 과도기적 조치들이 하나하나 청산되고 일신되어 갔고, 경제 안정과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시책도 속속 마련되었다.

1952년 4월 25일 지방자치법에 따라 실시한 인천시의회 선거에서 의원 28명을 선출하였고, 같은 해 5월 5일 역사적인 제1회 인천시의회를 개최하였다. 시의회는 1차 회의에서 초대 의장에 이명호(李明浩), 부의장에 하상훈(河相勳)을 각각 선출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에 김정일(金京日, 내무위원장), 권정석(權正奭, 산업위원장), 주원기(朱元基, 문교사회위원장), 오혁근(吳赫根, 징계자격위원장) 등을 선출해 시의회의 기반을 갖추었다.

이어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따라 초대 민선 시장에 표양문(表良文)을 선출하였으며, 1954년 2월 표양문 시장이 사직함에 따라 같은 달 16일 김정렬(金正烈)을 후임 시장으로 선출하였다. 제1차 시의회는 1956년 4월 25일로 임기가 만료되었으나 같은 해 2월 13일 지방자치법의 개정 공포에 따라 8월 15일까지 임기가 연장되어 4년 4개월 동안 활동하며 많은 업적을 남겼다.



시의회 본회의 광경



시제(市制) 실시 후의 시청사



초대 민선시장 선거



시의회의원 선거 개표 광경



시의회 의장선거



의회계

6·25전쟁과 인천상륙작전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북한군은 남진을 계속했지만, UN군은 120마일에 달하는 낙동강 전선에서 교착 상태를 맞게 되었다. 이에 UN군은 북한군의 후방에서 전열의 허리를 끊고 병력과 장비를 무찌른다는 작전을 세웠다. 그 첫 작전으로 수도 서울의 탈환을 포함하는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되었다. 이 작전의 1차 목표는 월미도 점령이었다. 9월 15일 오전 6시 한미 해병대는 월미도에 상륙하기 시작해 작전 개시 2시간 만에 점령을 완료했다. 2차 목표는 인천항 일원의 확보였는데 이때의 상륙 지점을 UN군은 적색해안(만석동 일대), 녹색해안(월미도 일대), 청색해안(용현동 일대)이라 부르며 주력부대인 한국 해병 4개 대대, 미국 제7보병사단, 제1해병사단 등을 투입해 점령해 나갔다. 그 후 서울 탈환을 위해 한국 해병 2개 대대, 미국 제1해병사단이 19일 한강을 도하해 공격을 개시하고 20일 주력부대가 한강을 도하하여, 26일 정오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함으로써 작전을 마쳤다.

1950년 6월 25일에 발발한 전쟁은 인천지역에 다시 한번 시련을 주었다. 휴전(1953.7.23) 후 20여 만명의 이북 피난민까지 수용했던 인천지역사회는 각고의 노력을 다시 해야 하였다. 인천항을 수·출입 창구로 하고 그 배후 공단(工團)을 주요 가공 공단으로 하면서 인천항을 한국의 관문으로 삼았던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 그리하여 휴전 이듬해 말에는 인천에서만도 267개 공장을 갖게 되는 복구를 이루었으나, 자재난·전력난·자금난에다가 기술력의 부족까지 겹쳐 더 이상의 성장에는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었다.



6·25전쟁 당시 해병대 상륙

인천시가 재수복된 것은 1951년 2월 10일경이었다. 국군과 유엔군은 2월 3일 인천 외항일대를 봉쇄한 다음 2월 10일 팔미도를 통해 제2차 상륙작전을 감행하여, 북한군의 저항을 무력화시키고 덕적도에 대기 중이던 해병대 주력을 상륙시켜 인천의 북한군을 소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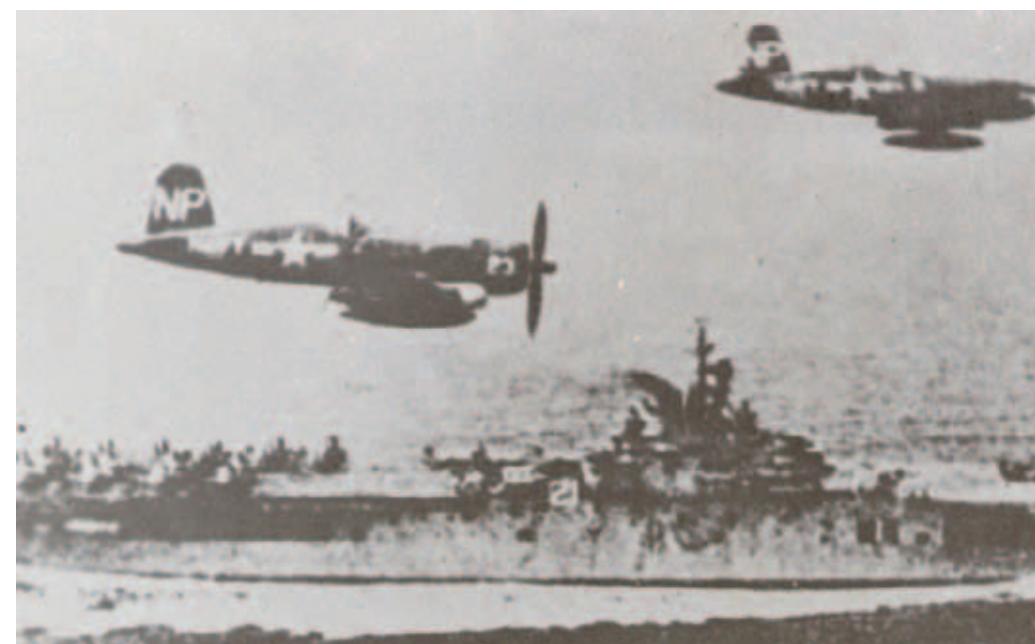
인천상륙작전 당시 인천담동성당
전쟁의 포화 속에서도 담동성당은 그 모습을 유지할 수 있었다.



작전을 지휘하는 맥아더사령관



인천상륙작전 당시 시가행렬



작전 중인 함대위를 초계비행하고 있는 함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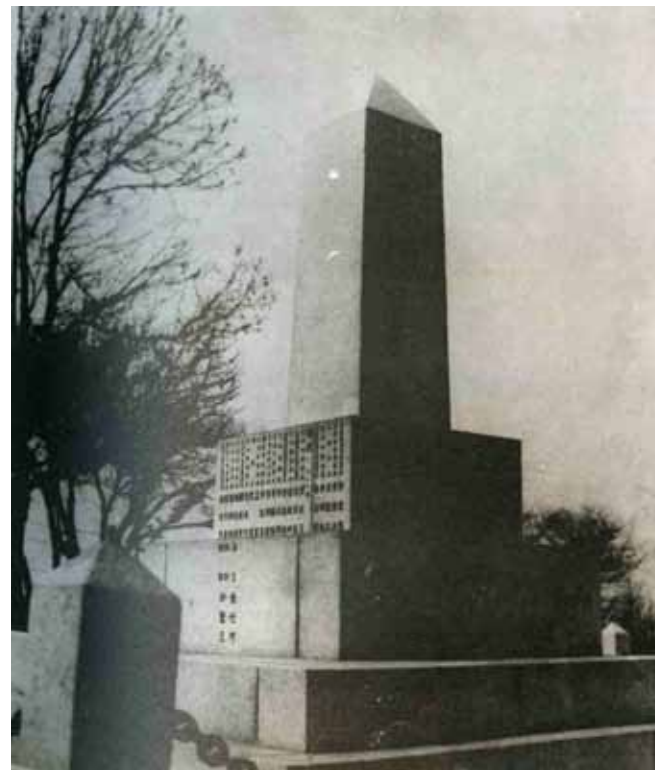
피난길



진군하는 해병용사를 환영하는 시민



전몰장병 위령제



자유공원에 건립된 충혼탑



맥아더장군 동상 건립 작업 광경
인천상륙작전의 성공과 그 의미를 담아 1957년 인천의 만국공원에 맥아더장군 동상을 세우고 자유공원이라 개칭하였다.



제헌국회의원 총선거 개표



제헌국회의원 총선거의 유세



4·19 학생데모



4·19와 민주혁명



2대 민선시장 선거



4·19데모와 초등학생들



인하공과대학



인하공과대학 개교기념식에서 설립자 이승만 박사의 교기 수여



인천시청을 방문한 하와이교포 원로단



하와이교포 원로단 조국방문과 시민환영대회
우리나라 최초의 해외 이민은 상당수가 내리교회 신자들이었다. 광복을 맞아 그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민의 출발지요, 고향인 인천에 대학을 세우자는 것이었다. 그들은 거액을 보내 '인하공과대학'의 건립 기반을 마련해 주었다. 인하공과대학 설립에는 이승만 대통령이 결정적으로 기여하였고, 인천 시민들도 그에 동참해 큰 자긍심을 갖게 되었다. '인천'과 '하와이'의 혈연적 유대를 잊지 않기 위하여 대학의 이름을 '인하' (仁荷)라 한 것도 그렇거니와, 오로지 민족의 앞날을 걱정하여 건립한 '민족대학'이란 점에서도 '인하공대'는 인천 사람들의 큰 자랑이었다. '인하공대'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해 종합대학 '인하대학교'로 발돋움하였다.



하와이교포 원로단 방문

1955년 10월 18일 조국을 떠난 지 50여년 만에 하와이교포 원로 42명이 고국땅을 찾았다. 그들은 경무대를 방문하고 서울시민환영대회를 시작으로 16일 동안 각 지역을 돌아보았다. 인천에서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인천항과 인하공대를 시찰했다.



3·1절 경축 전인천마라톤대회

먼지 풀풀 나는 신작로를 달리는 인천공고 껍재영 선수 뒤로 군용트럭을 타고 학교 깃발을 흔들며 열렬히 응원하는 인천공고 학생들의 모습과 힘차게 페달을 밟고 쫓아가는 친구의 모습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인다. 힘찬 응원 덕분인지 껍 선수는 결국 결승테이프를 1등으로 끊었다.



하와이교포 원로단의 인하대 방문 후 회식(1955.10. 공화춘)



3·1절 경축 웅변대회장 무대의 모습
벽에 걸린 구호들이 눈에 띈다.



6·25 멸공통일의 날 인천시민대회

1952년 6월 25일 전쟁 2주년을 맞아 공설운동장에서 멸공통일의 날 인천시민대회가 열렸다. 시청을 출발해 운동장으로 향하는 군악대와 그 뒤를 따르는 아이들.



포병 도미(渡美)유학생단

6·25 전쟁 중이었지만 한국군은 지휘관과 참모장교를 미국 군사학교에 약 6개월간 유학 보냈다. 포병장교 100명이 인천부두에서 파블백을 메고 배를 타고 미국으로 떠나는 모습이다.



10주년 광복절 경축시민대회

1955년 8월 15일 광복을 맞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인천시민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광복절 경축시민대회를 열었다.



아이젠하워 원수(元帥) 한국방문 환영

아이젠하워 원수는 미국 대통령 당선 직후인 1952년 12월 한국을 방문했다. 아이젠하워 원수의 한국방문을 환영하기 위해 많은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였다. 뒤 언덕위로 전도관이

들어서기 전 계명학원의 모습과 그 밑의 집들이 보인다.



공설운동장 바닥에 앉아 제7대 대통령 선거 유세 연설을 듣는 시민들(1971)



제7대 대통령 선거 투표(1971)
박정희 후보가 당선되었으며 당시 인천의 투표율은 79.2%였다.



유신 강연회(1972)
10월 유신은 1972년 박정희 정권이 제3공화국 헌법을 제4공화국 헌법으로 개헌한 것이다. 이때의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한다.



인천상륙작전비 헌화(1967)



도화동 국군묘지 안치 전몰장병 동작동 국립묘지로 이장(1968)
1968년 8월 17일 수습된 유골들이 헌병차의 후위 속에 동작동 국립묘지로 향하고 있다.



도화동 국군묘지
현재의 남구 서화초교 운동장 언저리와 선인체육관 아래 부분에 6·25 전쟁 때 전사한 국군 379위의 주검이 안장되었다. 매년 6월 6일 현충일이면 이곳에서 추념행사가 진행되었다.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 헌화와 묵념(1973)



인천상륙작전기념 시가행진(1971)



인천상륙작전기념탑 건립 기공식(1970)
인천상륙작전 스무 돌을 맞아 청량산 기슭에 인천상륙작전기념탑 건립을 위한 첫삽을 뜨는 장면



인천공설운동장에서 열린 예비군의 날 기념식 중 시청 중대의 사열(19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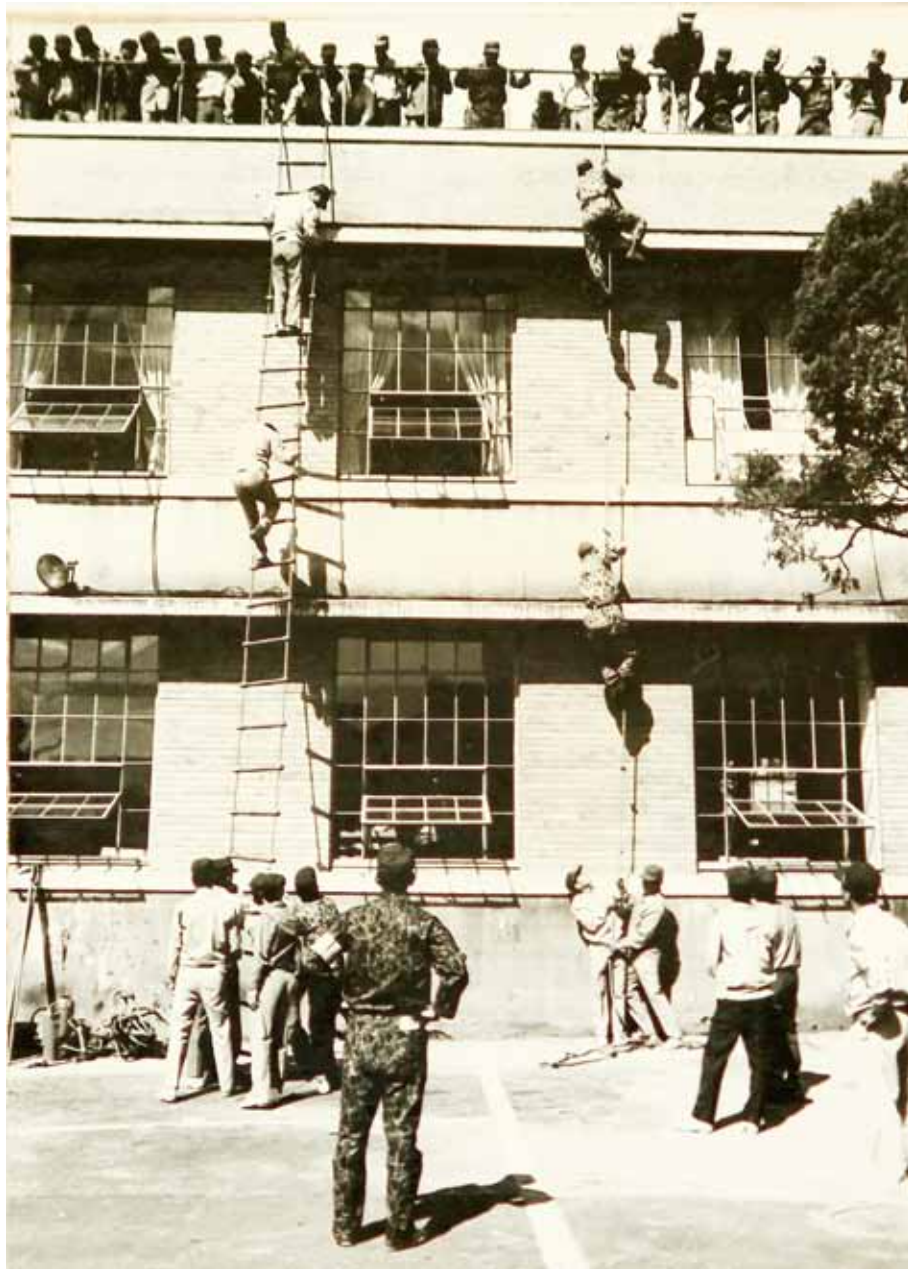
향토예비군은 1968년 북한무장공비의 서울 침투, 이른바 1·21 사태가 발생한 그 해 4월 1일에 창설되었다. 정부는 예비군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매년 4월 첫째주 금요일을 '예비군의 날'로 정하고 각 지역에서 대대적으로 기념식을 치렀다.



예비군 사격 훈련 모습(1970)



시청 여직원 예비군 결단식(1974)



시청 청사에서 사다리줄을 타고 피신하는 민방공 훈련(1972)
우리나라는 1972년 1월부터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고 민방공훈련을 실시하였다.



부상자 호송 민방공 훈련(1972)



을지연습장(1972)



인천공설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입대장정 환송식(1971)



인천지역 입대 장정 소집(1971)

언제 보아도 가슴 먹먹한 장면이다. 입대 축하 꽃다발을 목에 건 대표 장정들은 벌써 군기가 바짝 들었다. 지금은 훈련소 입소를 각자 하지만 옛날에는 인천지역(부천, 시흥 지역 포함) 장정들은 공설운동장에 한군데 모여 인근 남부역에서 논산행 입영열차를 함께 타고 입소했다.



동인천역 광장 민방위 교육(1972)

시민을 대상으로 제8관구사령부에서 주관한 '핵 및 화생방 훈련' 시범.



예총 주관, 반공연맹 주최로 열린 반공가요경연대회(1970)
 1970년 4월 29일에 열린 반공을 주제로 한 노래 경연대회로 무대에는 트로피가 놓여있고 옆에는 심사위원들도 자리잡고 있다.



인천점객업자 승공단합대회(1970)
 점객업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요식업체와 숙박업체 종사자들을 말한다. 현판에 쓰인 문구가 이해롭다. ‘간첩은 표식 없다. 그러나 먹고 자는 곳에서 찾을 수 있다’ 간첩들도 먹어야 하고 잠도 자야하니 분명 점객업자들이 주변을 눈여겨보면 간첩을 잡을 수 있다는 강연자의 설명이 이어졌을 것이다.



동일방직에서 열린 반공강연회(1970)
 1970년대 노동운동의 싹이 움트고 있던 동일방직은 대공(對共) 관련자들에게는 요주의 공장이었다. 그런 이유로 반공 관련 강연이 빈번하게 있었다. 이 장소는 당시 국내 최강인 동일방직 배구단이 연습하던 체육관인 듯하다.



인천항에서 열린 월남 파병 해군 환송식(1966)

우리나라는 미국과 월남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파병을 결정했다. 1964년 9월 11일 제1 이동외과병원(130명)과 태권도 교관단(10명)이 해군 LST편으로 출발한 것을 시작해 이듬해 공병대대, 경비대대, 수송중대 등으로 구성된 비둘기부대가 1965년 3월 10일 인천항을 떠났다. 이후 맹호부대가 미국함대 '베이 월드' 호 등에 분승해 인천항 출발하는 것을 시작해 십자성부대, 백마부대, 백구부대, 청룡부대 등이 속속 월남전에 뛰어들었다.



파병되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무사귀환을 빌며 꽃다발 증정(1966)



인천항을 출발하는 해군함(1966)



월남 파병 전사자 장례식 조문(1966)

누구의 전사 통지서를 받은 것일까. 월남에서 전사한 장병의 장례식이 치러지는 집을 시 관계자들이 쌀 한 가마니를 갖고 조문했다. 1964년 부터 1973년까지 약 9년간 31만 3천명의 우리나라 장병이 월남에 파병되었다. 동네 마다 한 두명의 젊은이가 월남에 파병되어 베트남과 싸웠다. 몇 달이 지난 후 곳곳에서 곡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편지, 소포 대신 전사통지서가 도착한 것이다. 월남 전쟁에서 전사한 우리나라 군인은 5천명에 이른다.



파월장병 귀국 환영 카 퍼레이드(1970)

월남전이 서서히 종전으로 접어들자 '따이한' 부대들은 하나 둘 한국으로 송환되었다. 정부에서는 '월남에서 돌아 온 새까만 김상사'들을 개선장군처럼 대우하며 열렬히 환영했다. 사진은 1970년 동인천에서 답동사거리까지 인천 출신 파병 군인들의 귀국 환영 카퍼레이드 장면이다.

각종 궐기대회



중공 핵실험 규탄대회(1965)
1964년 10월 16일 중공(현재의 중국)은 신장 위구르 사막에서 첫 원폭실험을 실시했다. 이듬해 우리나라 곳곳에서 중공의 핵실험 반대 궐기대회가 열렸다. 인천에서도 많은 시민들이 공설운동장에 모여 규탄대회를 대대적으로 열었다.



1·21사태 인천시민 규탄 대회(1968)
1·21사태는 1968년 1월 21일 북한이 김신조 등 31명의 무장간첩을 보내 청와대 침투를 시도한 사건이다. 전국적으로 규탄대회가 있었고 인천에서도 동인천광장에서 인천시민 규탄 대회가 열렸다.



북괴세균전 환책 규탄 및 남북 KAL기 승객 전원 송환 촉구 인천시민궐기대회(1970)
동인천 광장에 마련한 연단 위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마스크를 쓰고 있다. 세균전에 대한 일종의 퍼포먼스이다.



북한 규탄 결기대회(1971)
강산이 네 번이나 바뀔 40년이 지났지만 남북의 극한 대치 상태는 하나도 변한 게 없다. 당시에는 이런 류의 규탄대회가 많이 열렸다.



6·25 반공 시민 결기대회(1974)

2. 경제부흥과 기반시설의 확충

2. 경제부흥과 기반시설의 확충

인천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7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거듭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임해공단들과 부평공단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수출 위주로 전개되면서 이를 위한 각종 기간시설의 확충과 편의시설의 확대가 우선적으로 마련되었다. 인천 내항의 도크 확장(1966~1975), 그에 따른 연안부두의 축조(1973), 경인고속도로의 건설(1967~1968), 경인전철의 부설(1971~1974) 등이 그러하였다.



인천수출산업공단 조성 기공식

경제개발5개년계획의 수립과 함께 수출산업공단 개발이 구체화되었다. 구로동에 1개 단지, 가산동 일대에 2개 단지, 그리고 인천의 부평구와 서구 일대에 3개 단지 등 6개의 단지로 구성되었다. 인천수출산업공업단지(부평공단)는 1966년에 착공하여 1969년 10월에 609,6천㎡의 규모로 완공되었다.



제2선거 준공식

인천항 제2선거는 1966년 4월에 착공하여 1974년 5월 10일 준공하였다. 당시 인천시민의 날을 선거 준공을 기념해 5월 10일로 개정하였다.

경인고속도로의 건설

경인고속도로는 우리나라 최초의 고속도로다.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서울 양천구 신월동까지 총연장 23.89km를 연결했다. 1967년 착공해 1968년 개통했는데 처음에는 4차선이었으나 확장공사를 계속해 6차선 10.39km, 8차선 13.50km로 넓혔다. 인터체인지는 부천, 부평, 가좌, 서인천, 도화, 신월 등 6개소, 교량은 29개소가 있다. 원래 이 고속도로는 인천항의 수출입 화물 수송에 대비해 건설한 것으로 연장은 짧지만 고속도로시대와 고도 성장시대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인천과 서울은 경인고속도로의 개통으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게 되었고, 1974년 5월 인천항 제2선거를 완공한 후에는 그 기능이 더욱 강화되었다. 그러나 승용차 보급이 크게 늘면서 정체가 심해지자 정부는 만성적인 적체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1994년 7월 제2경인고속도로를 개통하였다.



1967년 경인고속도로 공사 현장



경인고속도로 개통 후 전경
부평 IC 부근으로 오른쪽이 계양산이다.

철도, 항구, 공단



경인선 복선개통 축하 대통령 인천 방문(1965)
1899년 경인철도가 놓인 이래 66년 동안 철마는 외길로 다녔다. 복선 공사는 일제강점기에 꾸준히 시도되었지만 제대로 진척되지 않았고 1965년 9월 18일 동인천역에서 영등포역까지 26.7km 구간이 복선(複線)으로 개통되었다.



부평수출산업공단 조성 작업광경(1966)



부평수출산업공단 조성 부지(1966)



제2도크 공사 현장(1967)

현재의 인천항은 1974년 5월 10일 제2도크가 완공되면서 비로소 제 기능을 하게 된다. 1966년 4월 소월미도와 월미도 사이를 매립하기 시작해 8년 만에 갑거(閘渠)와 갑문(閘門)을 갖춘 국제항의 면모를 갖추다. 이 공사에는 연인원 300만 명이 동원됐으며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간 공사 때만큼의 콘크리트가 사용될 만큼 엄청난 규모의 공사였다.



소월미도 매립지 공사(1971)

월미도와 소월미도 사이를 매워 각종 항만시설이 들어섰다.



제1도크 진수식(1972)



제2도크 갑문 축조공사



시운전 중인 울도 인천화력발전소(1969)

설비 용량 2만kw의 인천화력 제1호기가 착공 30개월만인 5월 29일에 준공되었다.

산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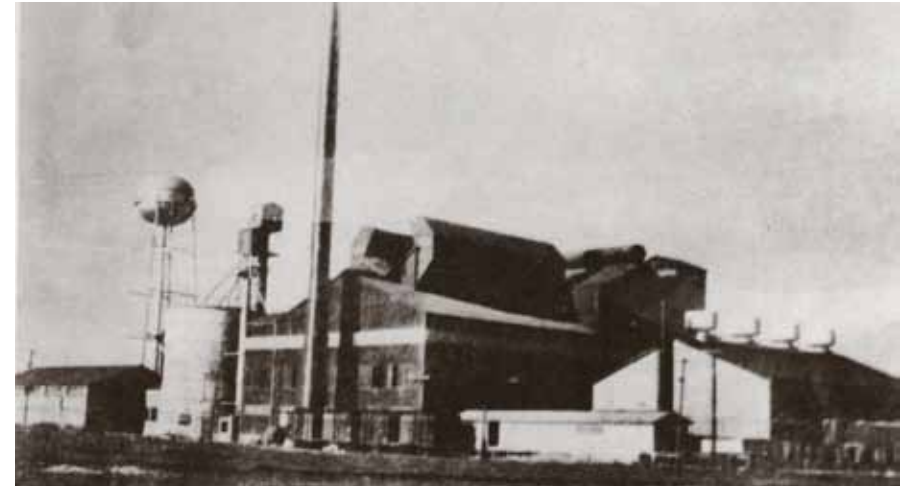
이천전기주식회사



대성목재주식회사



대한중공업공사



한국유리공업주식회사



대한제분 인천공장

지하도, 운교, 육교, 다리



동인천지하도 기공식(1967)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동인천역 부근은 인천에서 가장 번잡했던 곳이었다. 경인열차가 정차하고 거의 모든 시내버스가 경유했기 때문이다. 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안전한 보행을 위해 1967년 6월 3일 동인천지하도가 개통되었다. 물론 민방공 대피용으로 활용하려는 목적도 있었지만 지하도가 생기면서 역 광장은 말끔해졌다. 1972년에 이 지하도와 동인천지하상가가 연결되어 동인천 일대는 1970~80년대에 전성기를 맞게 된다.



동인천지하도 공사(1967)

요즘은 보기 힘든 코끼리차(기중기차)를 동원한 공사 장면으로 이 사진은 1960년대 인천에서 가장 번화했던 동인천역 앞의 풍경을 보여준다. 1964년에 문을 연 대한서림은 현재의 5층 건물 전에 그 옆 작은 2층 건물에 있었다. 5층 건물에는 별제과가 있었다.



동인천지하도 준공(1967)

1967년 6월 3일 동인천지하도가 개통된 날 광장에는 축하 애드벌룬이 높게 달렸다.



새인천지하상가 준공(1971)

현재 인천의 지하상가는 동인천역부터 신포동까지 길게 늘어서 있다. 1971년(5월 5일 준공) 새인천을 시작으로 1974년 동인천, 1977년 중앙로, 1980년 인현, 1983년 신포지하상가까지 모두 5개의 지하상가가 이어져 조성됐다.



송의운교 기공식(1967)

송의로터리에서 박문여고 가는 길은 원래 경인선 철길로 막혀있었지만 이 운교 덕분에 철로의 남쪽 동네와 북쪽 마을이 이어졌다. 뒤쪽에 거대한 성채 같은 전도관과 그 밑 송의동 109번지 동네의 납작 옆드린 초가집들이 보인다. 전도관은 당시 인천 어느 곳에서든 눈에 띄었던 랜드마크였다.



철길 밑으로 길을 내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 송의운교(1967)



인천극장 앞 전동운교 확장 공사(1967)

이 운교가 확장되면서 시내 중심가와 화수동, 만석동 등의 길이 편하게 이어졌다. 사람들은 흔히 이 운교를 '구름다리' 라고 불렀다.



전동운교 확장 준공(1967)

뒤편에 전동교회와 지금은 사라진 전동변전소의 모습이 보인다.



강화-김포간 육로개설 기공식(1962)



신광초등학교 앞 육교 개통(1971)
이 육교는 현재 철거되고 없다.



인천교 확장 공사(1971)

인천교는 1958년 1월 17일에 놓였다. 송림동과 가좌동(개천너)을 연결하는 다리로, 놓여질 당시만해도 인천의 대표적인 다리라는 뜻에서 '인천교'라 지어졌다. 사진은 1971년 6월 12일 인천교 확장 공사를 하는 장면이다. 서쪽 쪽이 점점 개발되면서 차량이 늘어나자 다리 폭을 넓히는 작업이다. 그러나 이 다리도 주변 갯벌이 매립되면서 다리로서의 기능을 다해 1998년에 완전히 사라졌다.



수문동 송현교 개수 공사(1966)

1966년 7월 수문동 위에 놓인 기존의 목교 대신 철근콘크리트 다리를 놓는 장면이다. 지금 같으면 서너 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을 20여명이 피약별 아래서 작업을 하고 있다. 이 다리의 이름은 '송현교'로 지칭되었다. 송현교 너머로 다닥다닥 붙은 판잣집을 품고 있는 수도국산이 보인다.



완공된 송현교(1966)

'수문동'은 동구 송현동 동아파트 옆에 있던 갯골이었다. 지금은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사용되어 보이지 않는다. 비록 크기는 작지만 당시 이 다리는 굉장히 중요한 다리였다. 부두에 하역된 고철을 실은 트럭들이 대한중공업(현 현대제철)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다리를 꼭 통과해야만 했다. 송현동, 송림동 등 피난민촌에 사는 사람들은 화수동, 만석동 쪽 공장과 부두에서 품을 팔기 위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이 다리를 건넜다.



인천교-제물포역 교량공사(1966)



서구 도로 확장 공사(1965)

구불구불 산 능선을 따라 조성된 이 길은 매년 봄 개나리길로 유명한 서구 승학길로 추정된다.



담동성당 앞길의 도로 포장 공사(1965)
장비라곤 로울러 차와 돌을 나르는 삼태기뿐이다. 후에 오른쪽 언덕에 가톨릭회관이 들어선다.



서흥초교 앞 도로 포장(1966)
오른쪽으로 지금은 완전히 복개된 바다로 흐르는 개울이 보인다. 백중사리 때 마다 물이 넘쳐나서 학교 운동장으로 스며 들기도 했다. 당시 학생들은 등교할 때마다 연탄재를 들고 가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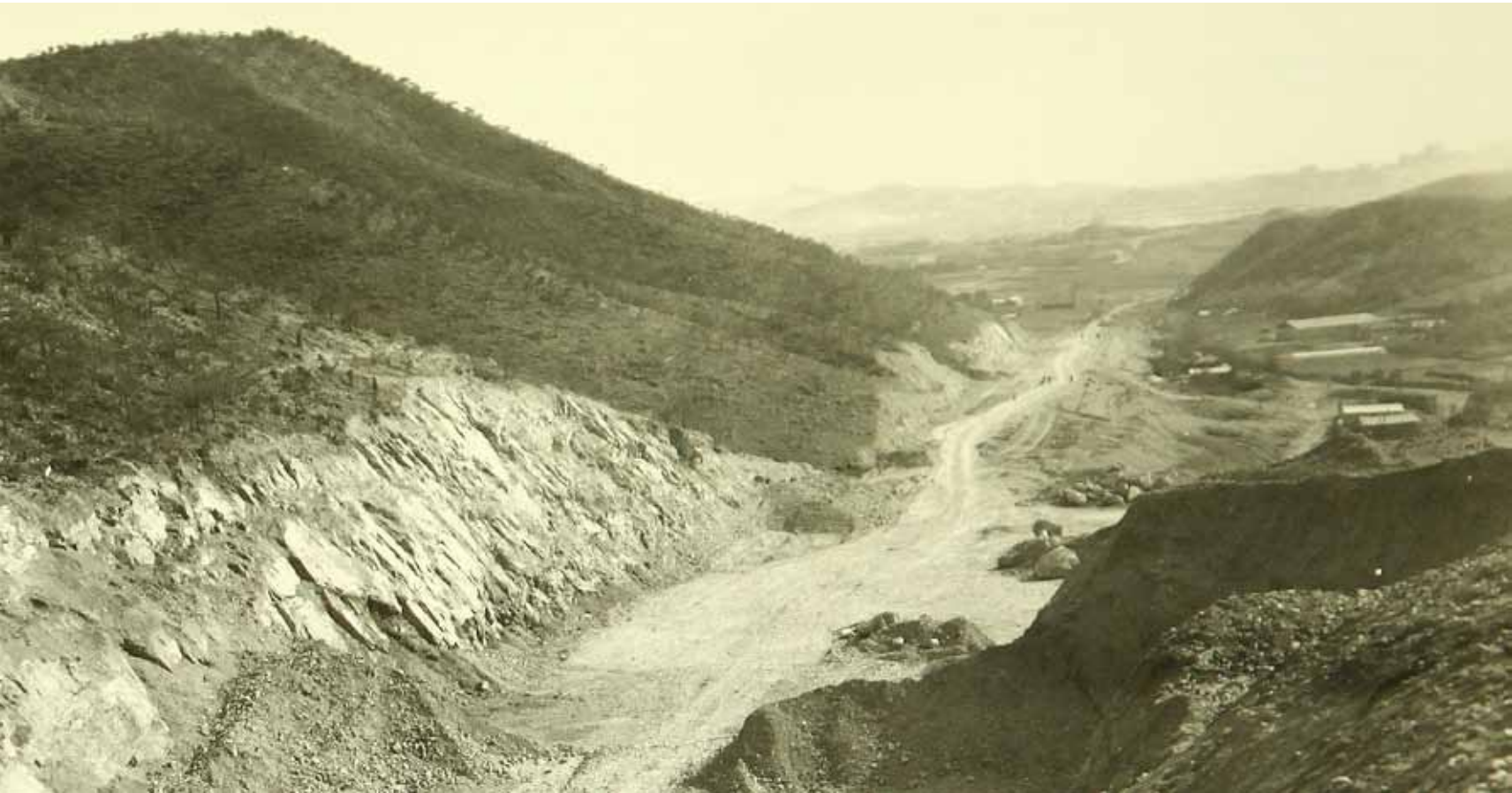


학익-문학간 도로 공사(1971)
멀리 문학산의 자태가 뚜렷하다.



철마산 노선 버스 개통(1972)

철마산은 인천지역과 부평지역 경계에 있는 산으로 두 지역을 왕래하려면 국도 쪽으로 돌아가야 했다. 이 도로의 개통으로 인천과 부평의 왕래가 15분 가량 단축되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 본 철마산 관통 공사 현장(1971)

인천과 부평을 잇는 폭 20m, 연장 6km의 철마산 관통 도로는 1969년 10월에 착공해 1972년 10월에 개통했다.



강화읍 동락천 석축공사(1970)



길상면 동검리 제방도로 공사전(1983)



강화읍 관청리(1983년경 동락천 복개 후)



길상면 동검리 제방도로(2007)



시 공영 연립주택 건설 공사 기공식(1967)



상이용사촌 건설 기공식(1967)
6·25전쟁에서 부상당한 상이용사들과 월남파병 상이용사들을 위한 주택과 공동 작업장 등이 인천 교외 곳곳에 세워졌다.



인천시 공영아파트 기공식(19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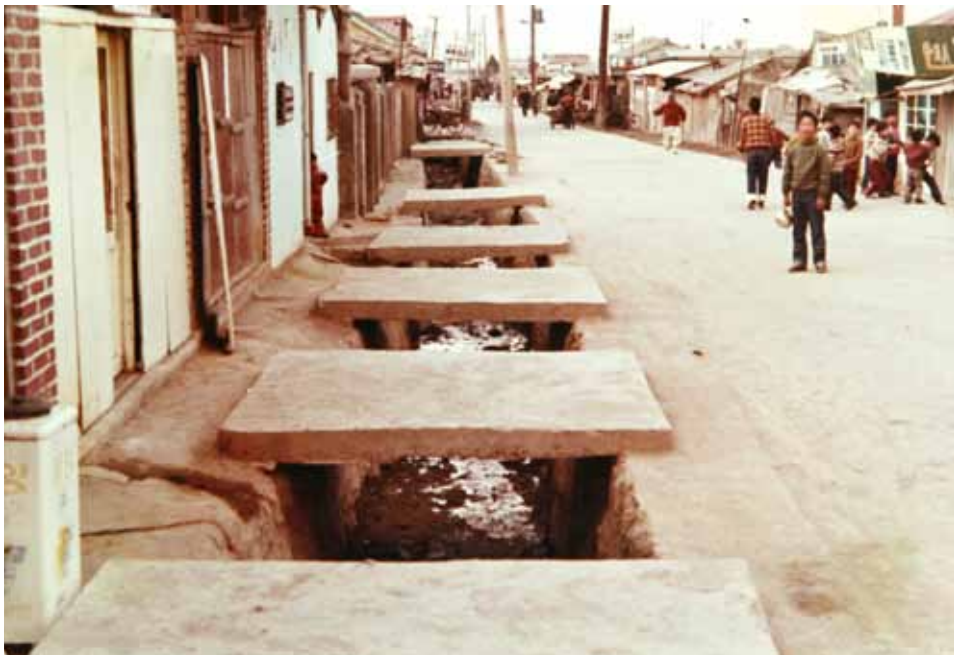


담장과 지붕 개량(1973)

인천 교외 어느 마을에서 진행 중인 새마을운동 공사 현장이다. 마을길은 넓어졌고 벚집 대신 조립식 합석판이 지붕을 덮었다. 낮은 흙담을 허물고 시멘트담을 세웠다.



부평지역 하수도 공사(1973)



부평 2동 하수도 복개 공사(1973)

요즘은 하수구를 완전 복개하거나 땅 밑에 하수관을 묻기 때문에 하수구를 보기 힘들다. 사진은 1973년 부평동의 모습이다. 준비를 하긴 했지만 하수구를 완전히 복개하지 않고 출입문 앞에 시멘트 다리를 하나씩 놓았다.



강화지역 새마을사업 농수로 토관 매설 작업(1970)



송헌1동사무소 낙성식(1966)



연회동사무소 낙성식(1965)
외향으로 봐서 일반 주택(혹은 창고)을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태극기 게양 모습만이 관공서임을 보여주고 있다.



북구종합청사 기공식 고사(1971)
북구는 현재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으로 분리될 정도로 확대 발전했다.



해망대산(海望臺山)에 신축 중인 올림포스(현 파라다이스) 호텔(1965)
개항 후 영국영사관이 설치되었고 이후 인천상륙작전 때 함포로 폐허가 된 빈터에 올림포스호텔이 1965년 12월 객실 43개로 개업했다. 1967년 8월 1일 우리나라 최초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설치되었다.



중양시장 공사 현장(1971)
동인천역 뒤편의 중양시장은 경인선 철로변을 따라 형성되었다. 시장 전체를 3개 구역으로 나누었는데 철길 따라 형성된 곳을 갑(甲)구 상가라 칭했고 맞은 편은 2개 구역으로 구분해 금곡동(배다리) 쪽을 을(乙)구, 화평동 쪽을 병(丙)구 상가로 불렀다. 불나기 쉬운 기존의 목조 상가를 헐고 당시에는 보기 드문 3층짜리 콘크리트 주상 건물을 지었다.



도원실내체육관 공사 현장(1971)

1969년 10월에 착공해 1975년 5월에 완공된 이 체육관은 선인체육관 이후 인천에 건립된 두 번째 실내체육관이었다. 3차례의 전국체육대회(1978년, 1983년, 1999년) 실내 종목경기가 개최됐다.



주안시민관 공사 현장(1971)



분뇨 수거차 도입(1965)

미군 군용 중고차를 개조해 분뇨수거용 차량으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 최초의 시장 전용 관용차(1966)

이제 자동차 소유는 자랑거리 축에도 끼지도 못하지만 관공서조차 승용차를 운영하지 못했던 시절이 있었다. 인천시장이 정식으로 처음 관용 승용차를 사용한 것은 1966년이였다. 미군 측의 기증이었는지 윤갑로 시장과 미군 장교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각 동사무소에 업무용 자전거 배부(1967)

공무를 수행하려면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녀야 했던 시절에 자전거는 유용한 '조달품'이었다. 우체부의 자전거, 쌀집의 자전거, 양조장의 자전거…… 한때 자전거는 한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는 '재산' 역할을 하기도 했다.



각종 공사에 동원할 불도저 구입(1967)



구청장 전용 승용차 인계(1968)

구청장들을 위한 관용 승용차들이 시청 마당에 세워져 있다.



현대식 청소차 도입(1970)



부인회의 자전거 기증(1972)



자동화 복사기 시연(1965)
그동안 등사판을 이용해 복사 업무를 하던 시절, 시청에 처음으로 자동화 복사기가 들어왔다.



식목일 나무심기(1971)
당시 인천 대부분의 산은 나무가 없는 민둥산이었다. '산림녹화'라는 슬로건 아래 매년 4월 5일 식목일을 맞아 공무원과 학생 그리고 시민들은 산에 꾸준히 묘목을 심었다. 그 덕분에 인천의 모든 산은 나무로 우거졌다.



시내버스와 합승버스

1960년 인천에는 시내버스와 합승버스가 있었다. 합승버스는 요즘의 마이크로 버스와 크기가 비슷하다. 당시 인천의 버스 요금은 일반인 5원, 학생 3원(회수권 2원50전)이었다. 합승 버스는 10원이었다.



동인천-동춘동 간 시내버스 개통(1965)

당시 동춘동은 '먼우금'이라고 물릴 만큼 시내에서 아주 먼 곳이었다. 향도교통 버스는 동인천을 출발해 송의동을 거쳐 송도역으로 해서 동춘동으로 들어왔다. 경축 아치의 모습이 이채롭다.



한국수출산업공단 제5단지(주안공단) 고속버스 정류소 설치(1971)

동인천에서 서울로 무정차 직행하던 고속버스는 1973년 9월 1일부터 가좌동 IC 앞 정류소를 경유하기 시작했다. 한국수출공단 일대로 출퇴근하는 '수출역군'들의 편의를 위해서였다. 수출드라이브 정책을 펼치던 당시에는 '수출'이라는 단어만 내세우면 하늘에라도 비행기 정류장을 만들 수 있는 시절이었다.



강화-서울역을 다니던 24인승 대중승합버스(1967)



강화읍 관청리 삼신운수 터미널(1967)
목조 기와집은 1947년 10월 9일 개관한 강화문화관



인천-수원 간 직행열차 개통(1968)
1968년 2월 1일부터 인천에서 영등포역을 거쳐 수원역까지 잇는 2개의 직통열차가 개통됐다. 당시에는 획기적인 교통시스템이었다.



객선부두 여객터미널 출구(1971)

1973년 연안부두로 옮겨 가기 전, 인천역 뒤편에는 화물선, 관공선, 어선 등이 정박하는 부두가 있었다. 현재의 해안동 한국 기독교 선교100주년 기념탑 옆 고가차도 부근에는 객선부두가 있었다. 이곳에서 백령도, 덕적도는 물론 충청도 당진으로 가는 여객선을 탔다.



공설운동장에 열린 경인선 전철 착공식(1971)

경인전철은 1971년 4월 7일 착공해 1974년 8월 15일에 개통했다.



만석부두에 속속 입항하는 원조 물자들(1965)

먼 바다에 구호식량을 선적한 화물선이 정박하면 작은 배들이 만석부두로 실어 나르고 가마니에 담아 하역했다. 지금은 없어진 판유리공장(한국유리)과 급수탑이 보인다.



기능공 서독 파견식(1971)

1960년대부터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불릴 만큼 경제적으로 크게 부흥한 서독(독일)은 한국 근로자들에게 '드림랜드'였다. 사진은 1971년 2월 인천에 있는 한국기계가 기술제휴를 통해 기능공을 서독의 만(MAN)사로 보내는 파견식의 모습이다.

3. 서민 문화시설의 확대

서민 생활의 이모저모

인천의 본격적인 성장은 1960·70년대에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거듭 추진되면서 이루어졌다. 이러한 성장은 주변 지역에도 영향을 주어 각종 산업을 발달하게 하고 아울러 인구 증가를 가속화시켰다. 인천시가 구제(區制)를 실시하던(1968) 당시, 인천시는 서울, 부산, 대구에 이어 4대 도시로 성장하여 있었고, 지속된 경제발전은 인천시의 산업과 사회를 더욱 성장시켜 인구 100만명을 돌파하여 인천직할시로 승격하기에 이르렀다(1981).

그 과정에서 시민들의 생활도 날로 향상되어 갔는데 보건복지나 농어촌의 개선, 문화와 체육, 생활개선과 계몽운동, 그리고 시민의 날 행사와 같은 다양한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미군들의 의료봉사 현장(1967)
인천에 주둔한 미군 의료진이 시민들에게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해충박멸을 위한 소방차 동원(1967)
가로수로 플라타너스가 많았던 시절에는 송충이도 많았다. 각 학교는 송충이잡이 연례행사를 가졌다. 자유공원의 송충이 등 해충을 박멸하기 위해 소방차로 약품을 살포하고 있다.



살충제 연막 거리 살포(1968)

여름밤에는 모기를 잡기 위해 연막소독차가 동네마다 다녔다. 연막소독차가 나타
나면 온동네 아이들이 그 뒤를 따랐다.



동구보건소 화평동 가두 예방접종 실시(1968)

콜레라, 장티푸스 등 각종 전염병이 발생하자 행인들은 너나 할 것이 없이 가던 길을 멈추고
주사를 맞았다.



전염병 예방접종(1971)

콜레라, 장티푸스에 걸리면 치사률이 높았기 때문에 모두가 팔을 걷었다.



조기 청소(1971)

예전에는 봄철이 되면 시청을 비롯한 각 기관과 단체에서 직원들을 동원해 '대청소' 라는 연례행사를 치렀다.



학생들이 동인천역 광장에서 청소를 하고 있다(1974).



보육원에 선물 증정(1973)
인천에는 시내 곳곳에 고아들을 양육하는 보육원이 여럿 있었다.



우량아 선발대회 중 발육상태 검사(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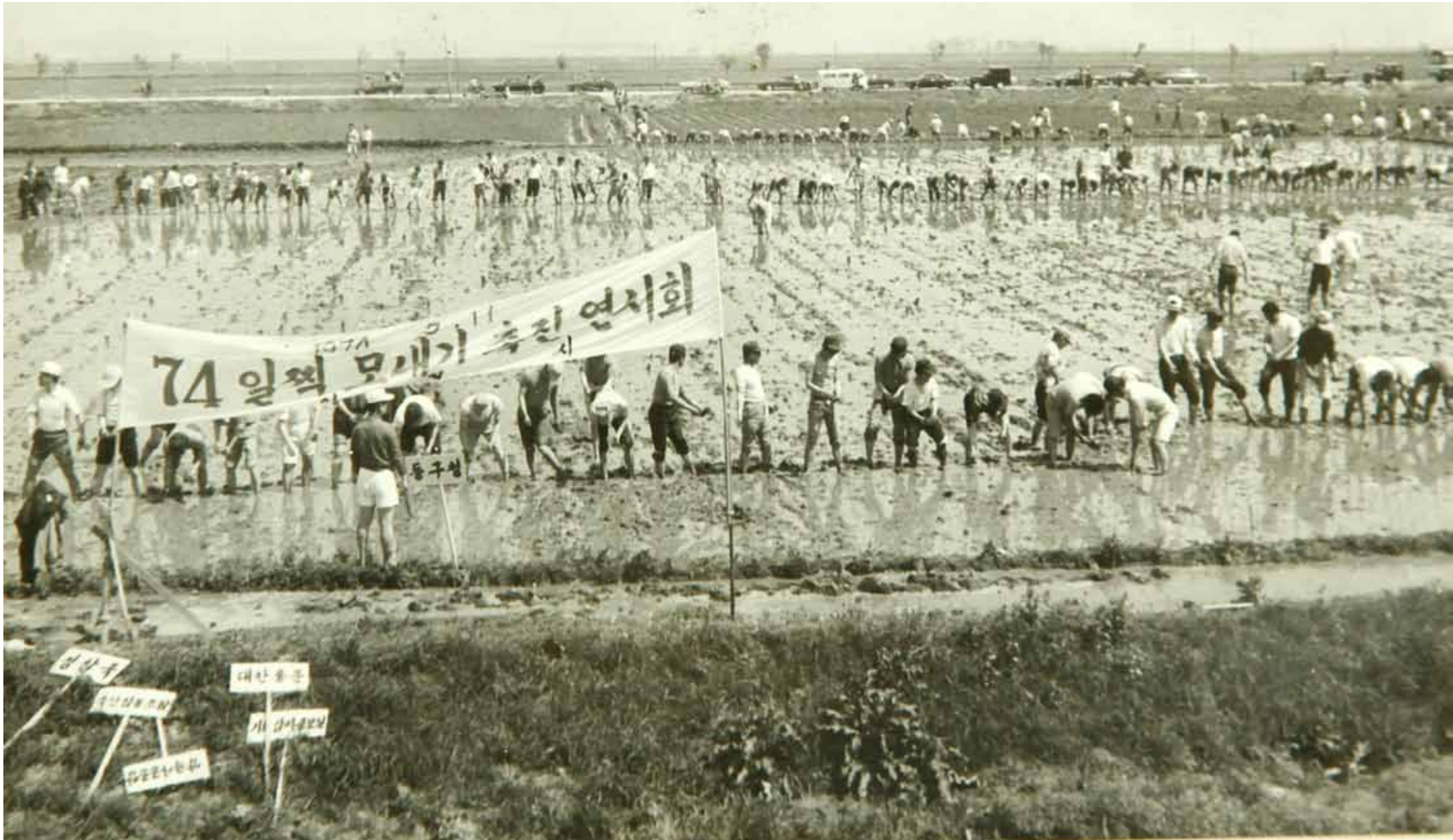
부인회, 나환자촌 방문 구호품 전달(1971)
지금의 부평가족공원 위쪽에는 '성계원'이란 한센병자 정착촌이 있었다. 보사부는 음성 환자들에게 완치 후 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정동 산36번지 5만평의 국유지를 내준다. 그들은 이곳에 '심정농장'을 만들어 양돈과 양계 사업을 시작한다. 그 중심에는 '문동병 시인' 한하운이 있었다. 그는 심정농장자치회장을 맡으며 그들의 자활에 앞장섰다.



야간 모내기 작업(1965)
가뭄이 심해지자 햇불을 밝히고 물을 대며 한 밤중에 모내기 작업을 하고 있다.



고잔동의 건담 직파 작업 현장(1966)



시청 전 직원 모내기 일손 돕기(1974)

요즘은 이앙기 등 기계로 모내기를 하지만 예전에는 사람의 손으로 일일이 모를 심어야 했다. 모내기철을 맞아 극심한 인력부족 현상을 겪자 인천시청을

비롯한 관공서와 기업체 직원들이 모내기 일손 돕기에 나섰다.



동막 갯벌 조개 채취(1971)

동막, 능허리, 척전마을, 신촌, 박짓뽕은 송도 갯벌에 접했던 마을들이다. 그들은 동막어촌계와 척전어촌계를 조직해 동죽, 가무락, 맛, 바지락 등을 채취하고 건강망 그물을 설치해 낙지, 송어, 꽃게, 장대, 망둥어 등을 잡으며 살았다.



조개잡이 도로 신설(1969)

동막 앞 갯벌에서의 조개잡이 편의를 위해 접근 도로를 개설했다.



조개 채취와 아암도(1971)

봄을 맞아 척전계 어민들이 송도 앞바다에서 조개를 채취하고 있다. 밀물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라도 더 캐기 위해 허리를 펴 시간도 없다. 오른쪽 위 지금은 육지와 맞닿아 버린

아암도의 자태가 뚜렷하다.



강화군 선원면 더리미 앞 선창가에서 조개줍기(1970)



초가지붕을 걷어 내는 장면(1973)
집 마당에는 공사할 블록이 쌓여 있다.



주택 개량이 끝난 농가(1973)
블록 담장과 초가지붕의 모습이다.



제5회 제물포제 시민위안의 밤(1969)



용동 큰 우물 기공식(1967)

1960년대까지 용동 큰우물 인근 율목동, 신흥동, 내동, 창영동 주민들이 이 우물을 길어다 먹었다. 현판은 인천 출신으로 당시 최고의 서예가였던 동정(東庭) 박세림의 작품이다. 최근 용동 큰 우물 주변은 용동출신 미학자 고유섭과 관련된 작은 공원이 조성되었다.



구제(區制) 실시 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68)
 인천시는 1968년 1월 1일자로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등 구제(區制)를 처음 실시했다. 이를 기념해 시립교향악단이 제5회 정기연주회를 하는 모습. 지금 교향악단에 비해 규모가 3분의 1 수준이다.



제2회 난파음악제 인천 지역 예선대회(1970)
 인천시를 비롯해 부천군, 김포군, 강화군, 옹진군 합창단들이 참가했다.



학익지석묘 이전(1971)
 이 지석묘는 문학산 인근 학익동 소년교도소(인천구치소) 옆에 있었다. 이 지역에 7기의 고인돌이 있었으나 일제가 소년교도소를 지으면서 6기를 없애버렸다. 1971년 소년교도소를 확장하면서 하나 남은 이 학익지석묘를 당시 인천시립박물관(현 제물포구락부) 옆으로 옮긴 것이다. 이 고인돌은 1990년 시립박물관이 옥련동 현 위치로 이전함에 따라 다시 옮겨졌다.



예그린 악단 인천 공연(1971)
 예그린 악단은 1962년에 창단된 단체로 정부가 운영하는 국립예술단 성격을 띤 공연단이었다. 예술공연을 접하긴 힘들었던 시절, 청소년들에게 예그린 악단의 공연은 많은 인기가 있었다. 당시 인천공연의 입장료는 100원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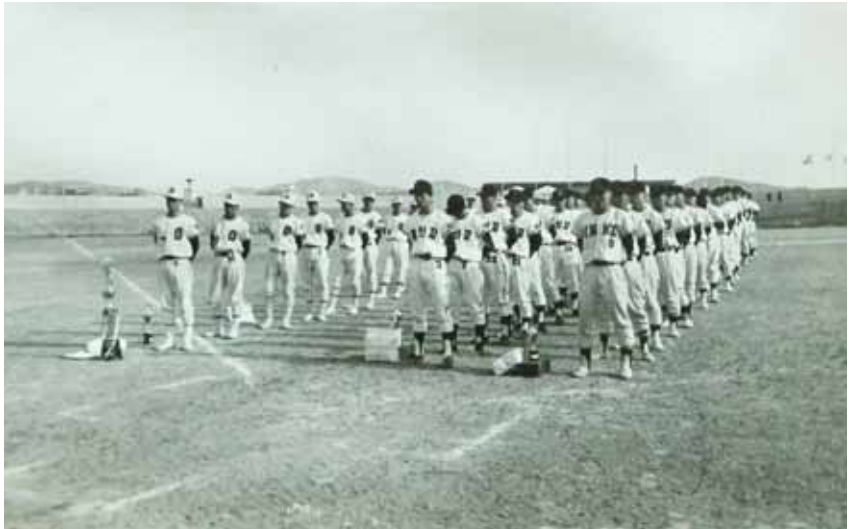
공설운동장에서의 전국빙상대회(1966)

공설운동장이 세워지기 전 빙상대회는 주로 한적한 교외였던 송림리(현 동구 송림동)에서 개최되었다. 정식 빙상경기장이라기보다 공터에 물을 채워 얼린 경기장이었지만 1925년 제1회 전(全)인천빙상경기 등 많은 빙상대회가 송림리에서 개최되었다. 도원동에 공설운동장이 들어선 30년대 이후부터는 각종 스케이트 경기를 이곳으로 옮겨 치렀다.



공설운동장 트랙 위 싸이클 경기대회(1973)

싸이클은 경기 특성상 벨로드롬경기장에서 해야 하지만 당시에는 그런 경기장은 꿈도 꿀 수 없던 시절이라 송의공설운동장 트랙에서 서로 부딪혀 가며 페달을 밟았다.



시장배 쟁탈 야구대회 시상식(1966)

'INKO' 라고 쓴 유니폼을 입은 인천고 팀이 보인다.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시청(현 중구청) 앞 출발(1971)



3·1절 기념 마라톤 대회 우승자(1971)



인천영웅들의 귀환(1970)
1970년 방콕아시아경기대회에서 메달을 획득하고 금의환향한 인천 선수들이 동인천역에서 시청(현 중구청)까지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카퍼레이드를 벌였다.



카퍼레이드 선두 차량에는 '아시아의 마녀'라는 별명이 붙은 투포환 금메달리스트 백옥자 선수가 탑승했다. 그는 심정동에서 태어나 박문여자 중·고교를 나왔다(1970).



세계제패 탁구 선수 환영 퍼레이드(1973)
1973년 4월 11일 유고 사라예보에서 당보가 날아왔다. 32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에서 한국여자탁구팀 이예리사와 정현숙 선수가 숙적 일본을 이기고 우승을 했다. 인천에서도 시민들의 열렬한 환영 속에 개선 행사를 가졌다.



미군 급수차 지원(1965)
가뭄으로 식수난이 계속되자 미군 급수차가 동원되었다. 어른은 물론 아이들도 '초롱'이라고 불리던 함석 물통을 급수차 앞에 길게 내놓았다.



타자 경연 대회(1965)
이제는 골동품 가게에서나 볼 수 있는 타자기이지만 예전에는 타자 관련 기능 급수를 따기만 하면 취업에 큰 문제가 없었다.



유흥음식세 복권 추첨(1965)
인천시는 탈세를 막고 세수를 늘리기 위해 유흥음식점과 다방 영수증에 복권번호를 적고 손님들에게 복권을 주는 제도를 시행했다. 복권번호 추첨을 위해 정부 입은 경찰관과 관련 직원들이 배석했다.



생활개선 계몽 현지 순회 발표회(1965)

의식주 관련 생활 개선에 대한 계몽활동을 벌였다. 만수동 마을 마당에 국민학교 텐트와 명석을 깔고 주민들이 모두 모였다. '쓸모 있게 개선하자'라고 쓴 행사가 취가 이채롭다.



생활개선 계몽 생활복 발표(1965)

현지 순회 중 동네 처녀 가운데 모델을 선발해 개량 의복을 선보였다.



주부 대상 편물강습회(1966)

1960, 70년대 뜨개질은 의식주 해결의 하나였다. 의류산업이 발달하지 않은 시절 겨울옷은 대부분 엄마의 손에서 만들어졌다. 옷뿐 아니라 장갑, 모자, 심지어 가방까지 '엄마표' 털실 제품이었다. 인천시 차원에서 주부들을 모아 뜨개질 강습을 열었다. 아기를 업은 엄마들도 새로운 코뜨기 기법에 열중하는 모습이다.



경인선 창영동 건널목(1967)

지금은 육교로 변해 버린 건널목이다. 바로 인근에 꿀꿀이죽을 파는 가게, 양조장이 있었던 탓에 사람들의 왕래로 늘 번잡했다.



구월동 전기 점등식(1971)

현재 인천에서 가장 휘황찬란한 구월동 로데오거리. 365일 불야성을 이루는 이 로데오거리가 있는 구월동 지역에 전기가 들어 온 것은 불과 40여년 전. 사진은 첫 전기불이 들어온 날.



율목풀장 개장한 날(1971)

율목풀장은 1972년 6월 22일 옛 시립도서관(현 율목도서관) 뒤편 현재의 어린이공원 자리에 개장했다. 1900년대 초반까지 인가가 거의 없던 이 언덕배기에 일본인들이 9천여㎡의 공동묘지를 조성했다. 이곳 산꼭대기 땅이 '풀장'이 되었다. 이 풀장은 1996년 폐쇄되었고 그 이듬해 다시 공원으로 조성되었다.



인천시청 건전가요 오락 보급강습회(1971)

정부는 1970년대 접어들면서 건전한 사교와 대중오락의 보급을 위해 의도적으로 '포크댄스'를 권장했다. 학교, 직장, 공장 심지어 군부대에서도 '집단 춤'을 추었다. 소풍, 체육대회, 축제 등 사람이 모이는 행사에는 포크댄스 프로그램이 꼭 있었다.



걷기운동 가두 캠페인(1973)

동인천 광장 인근에서 피켓을 들고 걷기운동 캠페인을 벌이는 모습으로 피켓에 적힌 표어 하나가 재밌다. '걸어서 건강 찾고 차비 아껴 불우(이웃) 돕자'.



백석동의 개량된 부엌(1973)
주거 개량 정책으로 지어진 시범주택이다. 타일로 내부를 마감한 부엌에는 무쇠 솥과 양은 솥 그리고 곤로와 나무 찬장이 전부다. 천장에 달린 소켓에는 백열전구가 비어 있다.



서창 운연동 공동빨래터(1973)



제3회 시민의 날 및 제1회 항도제 거리 행렬(1968)
인천시는 1965년부터 '6월 1일'을 시민의 날로 정하고 행사를 치르다가 상공계의 제안에 따라 1968년부터는 항도제(港都祭)를 겸해서 치렀다.



제6회 제물포제 개최식(1970)
인천시민의 날은 지역 상공계의 제안에 따라 1968년 제4회 때부터 항도제(港都祭)를 겸해서 치르다가 이듬 해부터 두 행사를 통합해 '제물포제'라 개칭했다.



제6회 제물포제 카퍼레이드(1970)
불거리, 즐길거리가 별로 없던 시절, 이런 행사는 시민들에게 큰 즐거움이었다. 퍼레이드 행렬이 담동성당 앞길을 지날 때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뤘다. 가톨릭회관이 들어서기 전의 언덕 공터에도 많은 사람들이 올라가 있다.



맥아더 동상 앞에서 치러진 제8회 제물포제 개최식(1972)



제7회 제물포제 퍼레이드(1971)
밴드부를 앞세우고 교련복 복장에 총을 어깨에 메고 행진하는 고교 학생들



도크 준공식 겸 제10회 시민의 날 퍼레이드(1974)
인천의 주요 기업체들은 기업의 성격에 맞게 자동차를 장식해서 행진했다.



제10회 시민의 날 퍼레이드 화교 학교 행진(1974)
인천중산학교 학생들이 사자춤과 용춤을 추며 행진해 시민들의 큰 인기를 끌었다 .



공설운동장에서의 시민의 날 시민위안 대잔치(1974)

도시풍경



동인천역 앞 야경(1966)
당시로서는 획기적인 상품이었던 조미료의 광고 네온사인이 불을 내뿜고 있다.



담방마을 전경(1973)



자유공원 설경(1966)



강화읍 관청리 전경(1975)

동북아의 중심도시, 새로운 도약 (1995~2013)

1. 광역시 승격

동북아의 중심도시, 새로운 도약(1995~2013)

1. 광역시 승격

1981년 인구 100만을 넘으면서 인천직할시로 발돋움했던 인천은 세계화·정보화의 추세와 중국의 개방화 정책으로 지정학적 비중이 더욱 높아지면서 1961년에 폐지된 지방자치제의 부활(1991)과 연계하여 인천광역시로 확장·승격되기에(1995.3.1) 이르렀다. 그리고 2013년 현재 인구 290만명이 거주하는 도시로 성장하였다.

그런 과정에서 인천에는 경제·사회·교통 등 각종 인프라 구축사업이 진행되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물론 인천국제공항 그리고 인천대교 등이 건설되었다. 송도, 청라, 영종 지구로 대표되는 경제자유구역은 이후 한국의 다른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확대에도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인천 국제공항은 세계적인 공항으로 거듭나면서 인천항과 더불어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인천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른 지구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2013년 GCF 본부 유치는 인천에 경제수도를 넘어, 세계적인 도시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열어놓았다. 세계은행 등 국제기관이 입주하게 되면 명실상부한 국제도시로 거듭날 것이다.



영역의 확대

강화군

강화도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동틀 무렵, 이미 한반도 서해안의 중심으로 자리하고 있었는데,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강화 고인돌 무리’를 비롯하여 단군(檀君)의 유향(遺香)이 강화도 곳곳에 전하고 있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축소판이라 할 만큼 그 문화재적 의미가 큰 지역이다. 전등사나 보문사 등의 사찰과 공자상을 봉안했던 교동향교, 팔만대장경의 조판, 강화학과 등이 강화의 정신적 역할을 대변해 준다면, 조선시대 12진보(鎭堡)와 53돈대(墩臺) 등 군사방어시설은 보장지(保障地)로서의 강화의 역할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그 가운데 특히, 고려 후기 몽고와의 항전 중에 39년간(1232~1270) 왕도의 역할을 한 것은 강화의 역사적 위상을 단적으로 말해준다.

이렇게 강화는 우리 민족의 상징인 참성단으로부터, 왕실의 보장처로, 또, 임시수도의 역할도 하면서 국방과 호국의 공간으로써, 아울러 사상을 생성시킨 정신적 공간으로써 우리 역사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다.



강화 전경





강화갯벌



강화갯벌 저어새 번식지



강화 고려산



강화 고인돌



교동읍성



보문사 마애석불좌상



선원사지



강화 유수부 동헌



고려선 참성단 칠선녀



고려궁지



전등사



초지진

웅진군

전근대에서의 웅진은 황해도의 웅진반도 일대를 지칭하는 지역이었는데, 광복 이후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었으며, 현재의 웅진은 1953년 7월, 6·25전쟁이 정전되면서 휴전협정에 의해 탄생되었다.

본래 황해도 웅진군이었던 지역은 모두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 되었고, 경기도 웅진군에는 1945년 11월에 편입되었던 백령면의 백령도·대청도·소청도와 송림면 연평도만 남게 되었다. 그러다가 1973년 부천군의 섬 지역이 모두 웅진군에 편입되는데, 그중에 영종도와 용유도는 1989년 인천시 중구에, 대부도는 1994년 안산시에 편입되었다. 그리고 1995년 3월 웅진군 일원이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되면서, 현재 백령면, 영흥면, 북도면, 덕적면, 연평면, 대청면, 자월면 등 7개 면과 장봉·소청 등 2개의 출장소로 구성되었다.

현재 인천의 섬은 150개이지만, 이 가운데 웅진군의 섬이 100개로 명실상부하게 인천의 섬을 대표하고 있다.

오늘날, 인천은 바다를 매립하면서 새로운 도시를 조성해 가고 있다. 바다는 바로 인천의 역사이자 미래이기도 하다. 현실적으로도 NLL로 대변되는 남북간의 긴장감을 평화의 바다라는 염원으로 풀어가자면 인천의 섬들, 서해5도를 비롯한 웅진군의 섬, 그리고 국토 최북단 끝 섬, 백령도에 대한 자원개발과 활용이 인천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가 될 것이다.



백령도 두무진



대청도 동백나무 자생복한지



연평도항



승봉도



굴업도 전경



덕적도



자월도



북도면 신도, 시도, 모도

항구

인천항

2013년 개항 130년을 맞이하는 인천항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로 사람과 물자를 실어 나르는 우리나라 제2의 국제항구로 자리잡았다.



인천항 전경



인천항 자동차 선적부두



인천항 국제여객터미널



월미전망대와 인천항

공항

인천국제공항 조성

1992년 영종도에 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를 시작으로 1996년부터 여객터미널 공사 착공, 2001년 개항 이후 동북아시아의 중심이며 세계로 통하는 국제공항으로 발전하였다.

인천국제공항 여객청사 건설공사(1998)





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과 교통센터

인천지하철과 고속화도로의 확대

1993년 7월에 착공하여 1999년 10월에 개통한 인천 최초의 지하철이다. 1호선 노선은 박촌과 동막 사이 29.4km다. 2007년 계양역이 개통되었고, 송도 지역 연장선에는 캠퍼스타운~국제업무지구역 등 6개의 역이 있다. 1호선은 북으로는 계양역과 인천국제공항철도를 연결하였고, 남으로는 송도와 연계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 총연장은 29.4Km이며 역은 29개소가 있다.

인천은 1899년 9월 18일 국내 최초로 인천 제물포에서 노량진을 연결하는 경인선 철도가 개통된 이래 1999년 10월 6일 인천의 남과 북을 연결하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개통과 더불어 현재 동서 지역을 가로지르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을 공사 중에 있다. 인천 도시철도 제2호선이 개통되고 그와 함께 서울지하철 7호선이 연계 되면 경인선의 혼잡율을 완화시키는 동시에 서울 강남권 등의 접근 교통수단을 제공하게 되어 인천 시민들의 편익을 증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지하철 1호선 개통과 송도연장선 공사

1993년 7월 첫 삽을 뜨고 1999년 10월 6일부터 운행을 시작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의 남과 북을 가장 빠르게 연결하는 교통망으로 2005년 송도신도시 연장사업이 시작되고 2009년 6월 1일 동막에서 송도국제업무지구까지 연장구간이 개통되었다.

인천지하철 시운전



인천지하철 1호선 건설현장



인천지하철 시운전



인천지하철 1호선 송도 연장구간 공사

공항철도(AREX) 시험운전

서울역과 인천국제공항을 오가는 공항철도(AREX)가 2001년 3월 23일 건설을 시작해 2007년 3월 23일 1단계 구간인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역 개통에 이어 2010년 12월 29일 2단계 구간 김포공항-서울역 개통을 하면서 완전 개통이 이뤄졌다.



공항철도 시험운행(2007)

수인선 공사현장과 수인역 주변 풍경

수원과 인천을 오가는 수인선 협궤열차는 1995년 12월 마지막 운행을 끝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이후 오이도에서 송도를 잇는 복선 전철 건설이 시작되어 2012년 6월에 개통하였다.

송도 수인선 부지



수인역 부근



만월산 터널 공사

남동구 간석동과 부평구 부평동 사이의 비연결 간선도로망을 확충하여 물류체계를 합리화하고 시내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해 2000년 만월산 터널 공사가 시작되었다. 만월산 터널은 2.87km의 왕복 6차선 터널로 2000년 12월에 착공하여 2005년 7월에 개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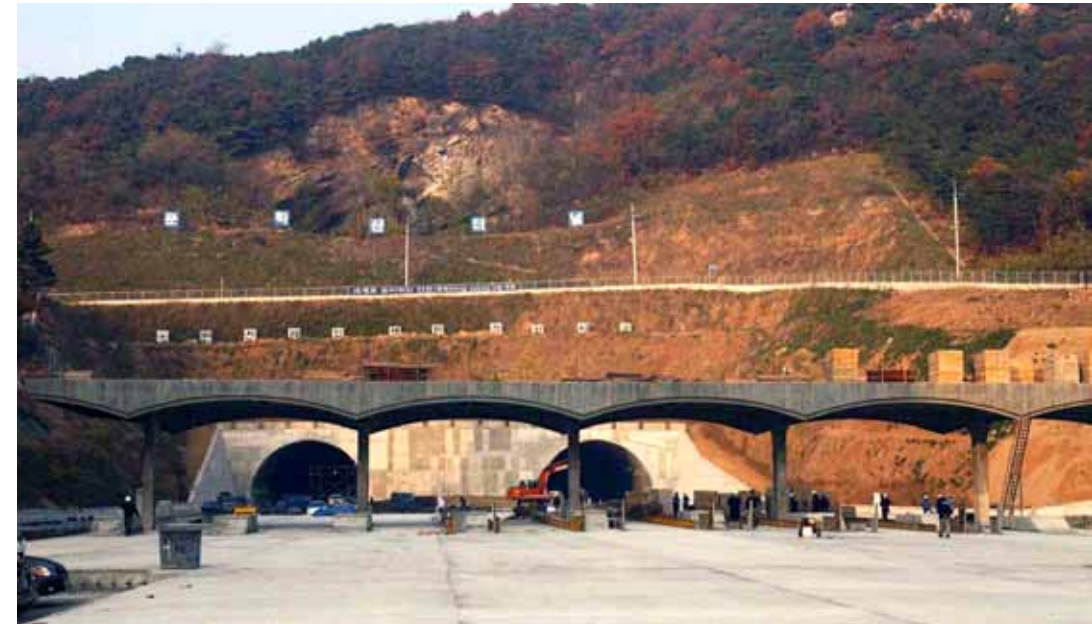


만월산 터널 착공

2000년 12월 만월산터널은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6동과 남동구 간석3동을 연결하는 길이 약 2.87km의 터널이다. 운영은 만월산터널주식회사가 담당하고 있다. 2035년 7월까지 유료도로로서 요금을 징수한다.

문학터널

1996년 11월 공사를 시작해 2002년 3월 15일에 개통된 문학터널은 남구 학익동과 연수구 청학동을 직통으로 이어주고 제2경인고속도로와 송도신도시로 바로 연결된다.



문학터널

영종대교 개통

영종대교는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과 중구 영종도를 잇는 다리로
서 총길이 4,420m, 교량너비 35m, 주탑높이 107m, 교각 수 49개
다. 영종도에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됨에 따라 영종도와 인천광역시
육지부를 연결하기 위하여 1993년 12월에 착공하고 2000년 11월 20
일에 개통했다.



영종대교 기념관



영종대교



인천대교 공사와 개통

2006년 6월 16일 공사를 시작하여 2009년 10월 16일에 준공된 인천대교는 총길이 21km로 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지구와 송도국제도시를 이어주고 있다.



인천대교 공사현장





인천대교 야경

시가지

부평시가지

부평은 수출공업단지가 들어선 후로 급속히 발전한 곳으로, 공업 단지가 조성되어 도시화가 이루어지기 전에는 해발고도 20m이하로 김포평야의 일부를 이루는 곡창지대였다.

부평일대 야경



부평시가지



연수구 전경

1995년 문학산 남쪽지역을 남구로부터 분리해 연수구라 하였다.



연수동 시가지 전경





간석동 고가도로



주안 일대



구월동 로데오 광장



동인천역 일대



도시와 농촌의 복합적 모습(계양구)



중구 개항장 전경

2. 글로벌 도시를 향해

2. 글로벌 도시를 향해

인천 중국의 날 문화축제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차이나타운의 활성화와 양국의 우호 증진, 인천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인천광역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 2002년부터 열리고 있다. 한·중 전통놀이와 전통의상 등을 체험할 수 있으며 다양한 중국 전통공연도 즐길 수 있다.



사자춤 공연



차이나타운거리 퍼레이드



변검공연



중국의 날 문화축제 이모저모



개막행사



인천해양축제

인천의 바다와 섬에서 피서와 관광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해양문화 관광축제로 인천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참여와 체험 위주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추억을 함께 나누는 대표적인 여름축제이다.



머드체험



맨손고기잡기



해양레포츠체험



축하공연



인천펜타포트 음악축제

문화체육관광부 2년 연속 유망축제로 선정된 펜타포트 음악축제는 인천을 음악도시로 브랜딩하고 관광마케팅 콘텐츠를 확대해 국제적인 축제로의 성장을 지향하는 대중음악 축제이다. 특히 2013년에는 음악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한 비전과 중장기 전략을 발표하는 ‘음악도시 인천, 선포식’을 거행하였으며, 송도신도시에 마련된 전용공연장에서 록페스티벌을 개최하였다.



2013 인천펜타포트 록페스티벌



밴드 칙칙칙의 공연



펜타포트 뮤직스팟 컨퍼런스



열광하는 관중들



음악도시 인천 선포식



인천세계도시축전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도시개발의 모델을 제시하고, 해외투자 유치를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추진되었다. '내일을 밝히다'라는 주제로 2009년 8월 7일부터 10월 25일까지 80일 동안 송도국제도시 제3공구 일대와 센트럴파크, 투모로우시티, 송도컨벤시아를 중심으로 한 인천광역시 전역에서 열렸다.



인천을 알리는 여러 행사가 송도신도시
여기저기서 열렸다.





인천대교 걷기대회

인천대교 개통기념 및 인천 방문의 해를 기념하기 위한 국내 최대 규모의 걷기대회가 17일 오전 국내 최장 세계 5위를 자랑하는 인천대교 위에서 약 5만 5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전국 차인(茶人) 큰 잔치

전국 차인 큰 잔치는 우리 차 문화를 알리기 위해 1990년부터 열고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차 문화전이다.
최근 웰빙식으로 각광받고 있는 차를 재료로 한 음식경연대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전시와 체험행사를 선보인다.



차를 통한 만남의 자리



다문화국가 페스티벌

다문화국가 페스티벌은 한국과 다문화 간 문화교류를 통해 다문화 커뮤니티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2014년 아시안게임 홍보 및 성공적 개최를 위해 열리는 문화행사이다.



부평 풍물대축제

부평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긍심을 고취하며, 전통문화인 풍물 보존과 현대적 계승·발전을 도모함과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하고자 1997년부터 시작되어 매년 1회 개최된다.

전국 학생 풍물경연대회와 전통민속놀이 재현, 퓨전음악 페스티벌, 풍물퍼레이드, 국악 한 마당, 시민들이 직접 풍물과 전통놀이를 체험해 보는 체험놀이마당 등으로 꾸며져 있다.



소래포구축제

포구라는 지역적 특색을 이용해 인근 수도권의 해양생태공원과 연계하여 2001년부터 열리고 있다.

풍어제를 시작으로 화려한 개막과 함께 먹을거리, 볼거리로 풍성하게 펼쳐져 해를 거듭하며 관람객의 수가 늘어 인천의 대표적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공식행사·테마행사·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다양한 행사 모습



화도진축제

동구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의 구심점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1990년부터 화도진 축제를 처음 시작하여 연례행사로 개최하고 있다.



화도진의 이모저모



강화 개천대제

매년 전국체전의 성화채화를 겸해 마니산에서 개천대제를 개최하고 있다.



아태도시정상회의 개최

대한민국 1호 경제구역인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송도 컨벤시아에서 2009년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아시아·태평양 지역 151개 도시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9 아태도시정상회의(APCS)가 열렸다.



세계모의유엔총회 개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컨벤시아에서 차세대 글로벌 리더들의 꿈의 무대인 '2011 세계모의UN총회'가 열렸다.



인천 자매·우호도시 정상회의 개최

인천시는 2007년과 2009년에 이어 2011년 10월에 송도 컨벤시아에서 15개 해외 자매 우호도시가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자매 우호도시 정상회의’를 열었다.



국제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 유치

인천광역시는 ‘유엔(UN) 녹색기후기금(GCF) 사무국’을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였다. 이를 통해 인천 송도가 바로 세계가 주목하는 ‘글로벌 녹색도시’로 우뚝서게 되었다. ‘환경 분야의 세계은행’으로 불리는 GCF는 오는 2020년 그 규모가 최대 8000억 달러(약 880조 원)로 불어나 국제통화기금(IMF)에 육박하게 된다.



3. 문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3. 문화를 통한 시민 삶의 질 향상

문학경기장 조성

문학경기장은 1994년 7월 착공한 후 2001년 12월 2일에 개장하여 2002년 한일월드컵 경기장으로 활용 되었다. 당초에는 전국체육대회를 치르기 위하여 건설하던 도중 1996년 6월 30일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 한·일 공동개최가 결정됨에 따라 월드컵 개최를 위하여 설계를 변경하였다.



문학경기장 건설현장



문학경기장 야경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최

인천 문학경기장에서 2005년 9월 1일부터 4일까지 5일간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가 열렸다. 이에 앞서 8월 29일에는 강화도 마니산 참성단에서 채화된 성화가 8월 31일 인천시내 총 69개 구간을 순회한 후 문학경기장으로 옮겨졌다.



이봉주와 북한 임춘애 성화 봉송



문학경기장 제16회 아시아육상경기대회 개막식

대학, 도서관, 박물관

제물포 인천대학교와 송도캠퍼스시대 개막

1979년 1월 학교법인 선인학원에서 인천공과대학으로 설립된 인천대학교가 2007년 4월 송도 캠퍼스 건설에 착수하여 2009년 7월 30일 준공되어 남구 도화동에서 송도국제도시로 이전하였다.



인천대학교 송도캠퍼스



인천대학교 제물포캠퍼스



선인체육관



해체되는 선인체육관(2013.8.3)
1973년 완공되어 당시 동양 최대 규모의 체육관으로 불리며 각종 주요 스포츠 경기가 치러진 선인체육관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도화지구 개발사업에 따라 2016년까지 주택단지와

근린공원이 들어설 예정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은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하여 해외에서 선조들이 활약했던 모습과 개척자 다웠던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2008년 6월 13일, 인천시민들과 700만 해외 동포들이 땀과 정성을 모아 세운 국내유일의 이민박물관이다.



한국이민사박물관 개관식

미추홀도서관

1921년 인천부립 도서관으로 설립되어 1946년 중구 율목동으로 이전한 이후 시립도서관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2009년 6월 23일 구월동에 미추홀도서관으로 개관하였다.



미추홀도서관



개항박물관

개항박물관은 개항장에 준비한 각 테마별 소규모 박물관을 총칭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지만, 일본제1은행 건물을 리모델링하다 보니 개항이라는 주제를 모두 담기에는 한계가 있어 제한된 공간을 활용하여 근대 개항 후 최초로 수용되었던 문물을 우선적으로 소개하는 테마전시관의 역할을 하고 있다. 2010년 개관한 이 공간에서는 동양유일의 갑문과 축항, 최초의 경인선과 철도, 근대식 우편의 시작과 인천지국, 최초의 군함 광제호와 태극기, 전환국과 주화 등 처음 도입되었던 근대 문물들에 관한 이야기를 아기자기한 구성을 통해 만날 수 있다.



개항박물관 내부



개항박물관 외부

짜장면 박물관

인천 차이나타운은 화교가 한반도에 처음 정착하고 청요릿집이 문을 열면서 짜장면은 차이나타운의 대표적인 음식이 되었다. 1912년 개업한 공화춘이 1984년 폐업하면서 한동안 방치되어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2012년 4월 28일 '짜장면 박물관'을 열었다.

짜장면박물관 개관



소래역사관

소래·논현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함께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 등으로 소래지역의 역사와 전통적인 문화가 잊혀져 감에 따라 소래지역의 역사를 보존하고 아름다운 옛 모습을 추억하고자 소래역사관을 열었다.



소래역사관 전시실



재래시장의 현대화 이모저모



송림동 동부시장과 현대시장



현대극장 주변 거리



송림시장 현대화



시설현대화 사업 미진행 구간



시설현대화 사업 후의 시장모습



시설현대화 사업으로 깔끔해진 시장 모습



신포시장 아케이트와 쉼터



십정종합시장 입구



부평종합시장 입구



석바위 시장 내부



옥련시장



강화풍물시장 내 노점



작전시장 입구



거북시장



중앙시장 입구

문화공간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

1990년 3월에 착공하여 1994년 4월 8일 개관한 인천종합문화예술회관은 인천시민의 문화예술 향유의 공간이 되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



종합문화예술회관



인천아트플랫폼

인천아트플랫폼은 박물관으로 기획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산업문화유산인 옛 창고건물을 개조하여 인천문화재단의 사무공간과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장소로 또,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1899년 깃벌을 매립하면서 조성되었던 창고들은 한성공동창고주식회사 인천출장소(1907)로부터 조선미곡창고주식회사 인천지점(1930)을 거쳐 대한통운주식회사 인천지점(1962)에 이르기까지 인천항에서의 물류운송 사업의 터전이 되었던 곳이다.

인천아트플랫폼 내에 위치한 일본우선주식회사 건물도 아트플랫폼 전시관으로 활용되고 있다. 1888년에 신축되어 인천항에서의 물류수송을 담당하였던 이 건물은 1904년 제물포해전 당시 일본병참사령부로 사용되었던 역사적 이력을 담고 있어 개항장 박물관의 한 전시물을 구성하고 있다. 여기에 또 다른 전시공간으로 창고를 개조한 근대박물관이 조성되고 있으니, 매립지에서 문화공간에 이르는 그 변화 속에 상전벽해(桑田碧海)라는 말을 실감하게 된다.



근대박물관(2013.9.27 개관)



4. 도시 재생과 신도시 건설

4. 도시 재생과 신도시 건설

인천시 청사와 구월동 주변

인천시청은 1933년 인천부 청사로 건립된 현재의 중구 청사에서 1985년 구월동에 청사를 신축하여 이전하였다.



구월동 인천시 청사와 주변(1985)

시청주변



구월주공 옛 모습



구월간석주공



구월동 시청주변 옛 모습



구월농산물시장 전경



시청에서 바라본 구월동(1985)



시청 앞 미래광장(2013)

인천교 매립

1957년 착공하여 1958년 1월 준공되었다. 가좌동과 도화동 경계에 위치하여 경인간의 자동차 통행시간을 약 40분 내외로 단축하였다.



인천교 부근



인천교 매립 예정지

화도진공원

화도진공원은 1982년 한미수교 100주년을 맞아 조성되었다. 1879년 연안방비를 위해 군사시설인 화도진을 두었는데, 이후 화도진 터만 남았던 것을 복원하고 주변을 공원으로 조성했다. 화도진은 현재 인천광역시 기념물 제2호로 지정되어 있다.

1980년대 화도진공원 주변



화도진 일대

북성동과 현재의 차이나타운

중구의 서쪽, 내항 바깥에 위치한 월미도 매립지 일대의 북성동 지역에는 항구 접근성이 요구되는 제당·목재·합판·조선 등의 공업이 발달하였다. 인천의 대표적인 관광명소 중 하나인 차이나타운은 1883년 인천항이 개항되고 이듬해 청나라 조계지가 설치되면서 중국인들이 현 선린동 일대에 이주, 정착하여 그들만의 생활문화를 형성한 곳이다. 1920년대부터 6·25전쟁 전까지는 청요리로 명성을 얻었는데 공화춘, 중화루, 동흥루 등이 전국적으로 유명했다.



중구북성동차이나타운



인천역에서 바라본 차이나타운과 패루



차이나타운 거리모습



송현동 수도국산 주변과 달동네박물관

6·25전쟁이 발발하면서 남으로 피난 갔던 사람들이 잠시나마 거주할 곳을 찾다 산비탈에 집을 지어 모여 살게 된 것이 달동네의 시초인데, 송현동은 인천에서 유명한 달동네지만 아파트가 들어서는데 등 깔끔하게 정비가 되면서 옛날 모습을 기억할 수 있게 박물관을 만들어 놓았다.



송현동 수도국산



수도국산 달동네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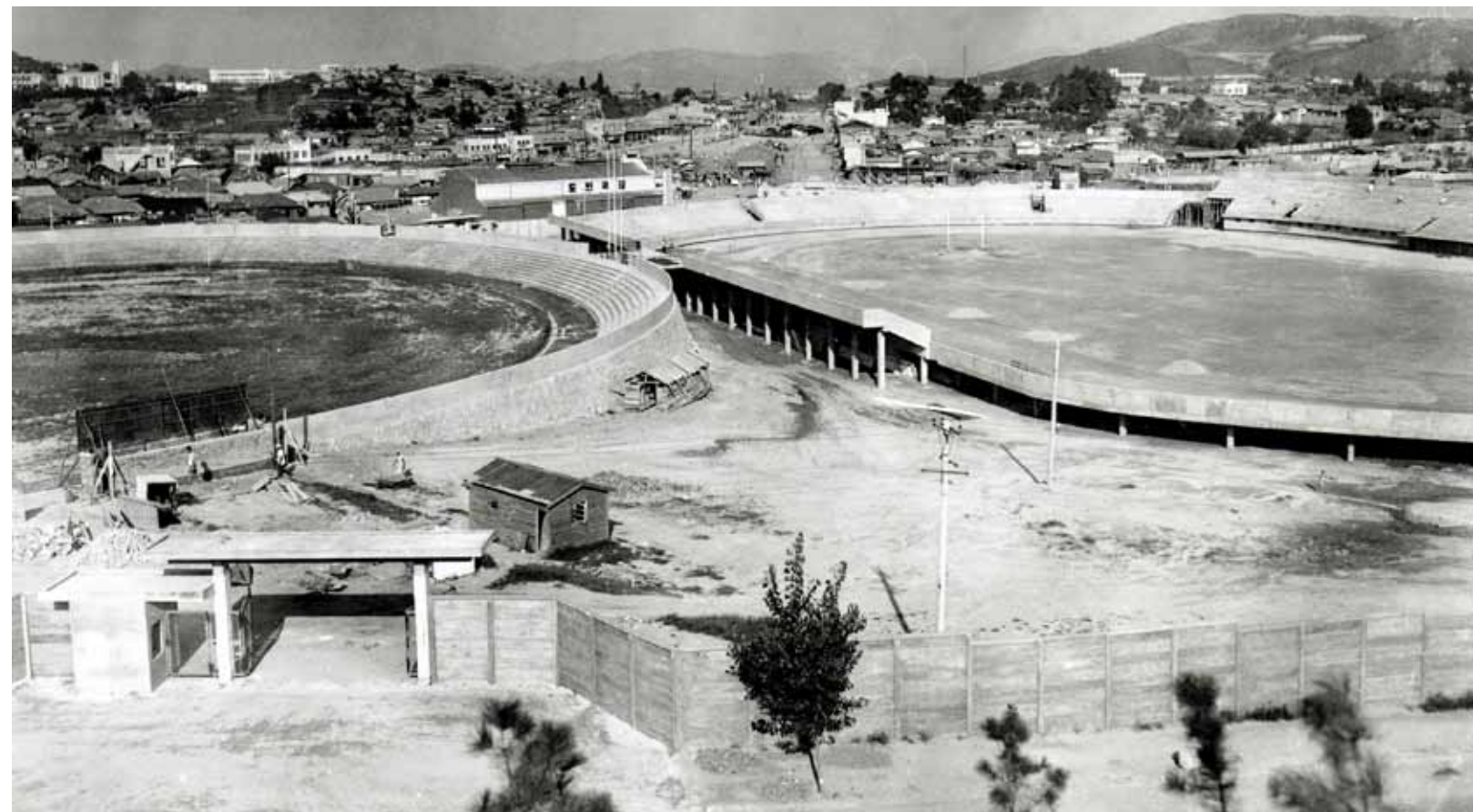
송현동 전경

숭의운동장과 숭의아레나

우리나라 최초의 공설운동장으로 일제시대인 1920년 육상장과 1934년 야구장으로 개장한 숭의종합경기장이 인천축구전용경기장(숭의아레나파크)으로 리모델링 하기 위해 2008년 6월 13일 철거를 시작했다.



도원실내체육관 건설현장



숭의운동장



바닥의 잔디 철거중인 송의운동장



폭파 후의 송의운동장



해체되는 송의운동장(2008.6.13. 17시 전광판)



폭파해체 전의 송의운동장



송의아레나 인천유나이티드 서포터스



송의 축구전용구장 완공

동아매립지와 청라국제도시

현재의 청라지구는 1980년 동아매립지 매립승인 이후 매립을 시작해 1991년 1월 준공되었다. 1999년 정부가 동아매립지를 매입한 이후 2003년 송도, 영종과 함께 인천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 현재는 청라국제도시로 발전하고 있다.

1980년대 동아매립지(현 청라지구)



2007년 청라지구 매립



청라지구 조성 모습





2013년 현재 청라지구

소래포구와 수인선

1937년 일제강점기에 건설된 수인선 중심에 있는 소래포구는 1960년대 실항민들이 어선 10여 척으로 근해에 나가 새우잡이를 하면서 만들어진 포구이다. 수원과 인천을 오가던 수인선 협궤열차는 이용객이 줄어들면서 1995년 운행이 중단되었다가 2012년 6월 쾌적한 복선 전철로 부활했다.



송도역



소래포구



소래포구와 수인선 재개통(2012. 8)



소래포구 일대(2009)

서구 검암지구 개발

검암동에는 축시장으로 알려진 ‘밭아장’에 전국의 보부상들이 많이 드나들었다. 세종실록에는 서구에서 생산된 ‘사자쭈’이 약효가 좋아 중국과 일본에도 알려졌으며, ‘쭈당의 고장’으로 불리었다고 기술돼 있다. 이곳 검암동 일대가 1995년 2월부터 본격적으로 토지구획사업을 시작해 지금의 검암지구로 개발되었다.

검암지구 개발전 모습



검암1,2지구



경인아라뱃길(경인운하)

한강 하류의 행주대교에서 서해로 연결되는 운하로 주 운수로의 길이는 18km, 너비 80m, 수심 6.3m이며, 2009년 3월 착공되어 2011년 12월 준공되었다.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경인운하 건설현장



마무리공사 현장



아라뱃길 완공

영종 하늘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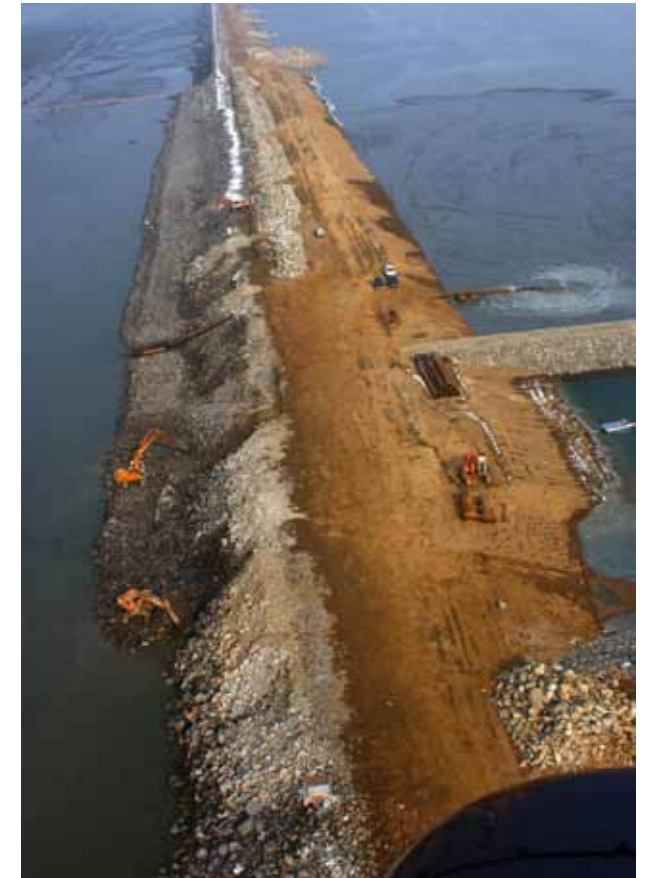
왕산해수욕장 전경



하늘도시 전경(2013)

송도국제도시

1986년 송도정보화신도시 조성계획이 수립되고, 1990년 11월 당시 해양수산부는 송도정보화 신도시 공유수면 매립을 승인하였다. 1994년 송도 매립 공사가 시작된 이후 바다를 메워 닦은 터에 송도 국제도시로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송도매립(1997)





송도신도시 매립 현장



송도 센트럴파크



송도 센트럴파크 굿마켓



송도 국제도시 풍경



갯벌타워에서 본 송도 신도시

지형의 변화와 지도로 보는 인천

지형의 변화와 지도로 보는 인천

간척, 갯벌매립, 공유수면의 지형변화

갯벌매립과 간척사업을 통한 공유수면의 확장은 근대 개항 이래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지형상의 변화는 지도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1907년부터 갯벌(간척지)도 허가를 받아야 매립이 허용되었는데 간척지로서 입지조건이 유리한 서·남해안은 오래 전부터 농지를 확보하기 위한 공유수면의 매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공유수면매립이란 국유에 속하는 바다, 바닷가, 하천·호소(湖沼)·구거(溝渠), 기타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일제강점기에는 미곡증산정책의 일환으로 매립 간척에 의해 많은 농경지가 조성되었다. 1935년말 매립 준공인가 된 것이 2,227건에 약316km²에 이르며, 1936년 4월 매립면허를 받은 것이 1,493건에 약457km²에 달했다.

광복 이후 연안개발은 1962년 1월 공유수면매립법 제정으로 본격화되었다. 1960년대 공유수면매립은 대부분 식량증산을 위한 농업용 간척사업이었다. 1967년 동진강 수리간척 방조제와 1969년 미면 간척지 방조제가 준공되었다. 1970년대에는 식량자급정책으로 간척농지와 수자원확보를 위해 농업종합개발사업으로 아산, 남양방조제가 착공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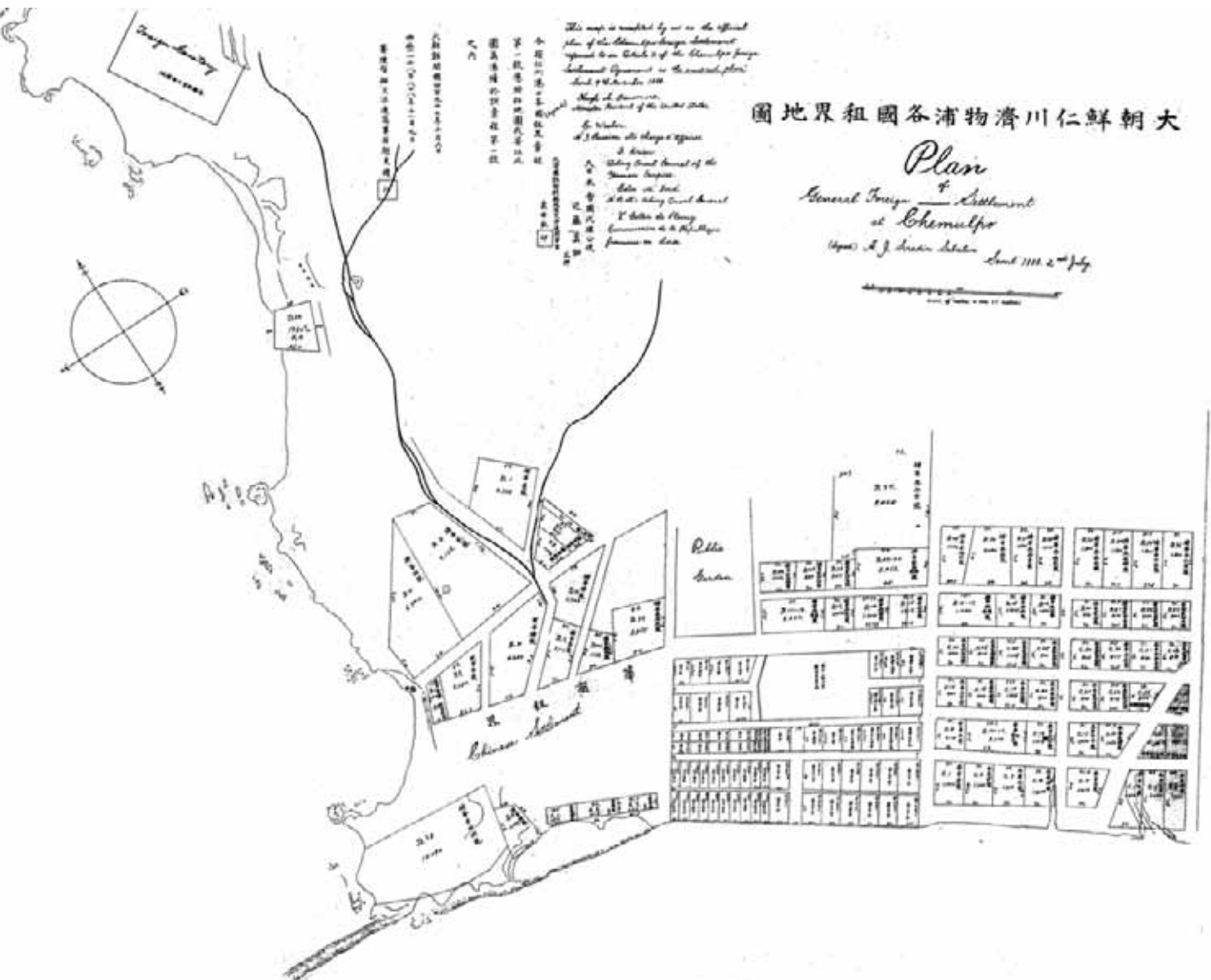
1980년대는 인구증가, 산업발전 등으로 농업용지, 도시용지, 공장용지, 발전용지, 환경오염 처리시설용지 등 각종 토지수요가 발생했고, 새로운 토지공급을 위해 대기업과 정부 및 공공기

관에 의해 매립사업이 대규모로 추진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매립간척사업에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1986년 공유수면매립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개정된 법률에 의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이 의무화되었다. 매립기본계획은 매립예정지역을 사전 고지함으로써 공유수면의 난개발을 억제하고 합리적인 이용을 증진하기 위해 수립하는 국가계획이다. 전국 연안을 대상으로 제1차(1991~2001), 제2차(2001~2011), 제2차 변경(2007~2011), 제3차(2011~2021) 등 4차례의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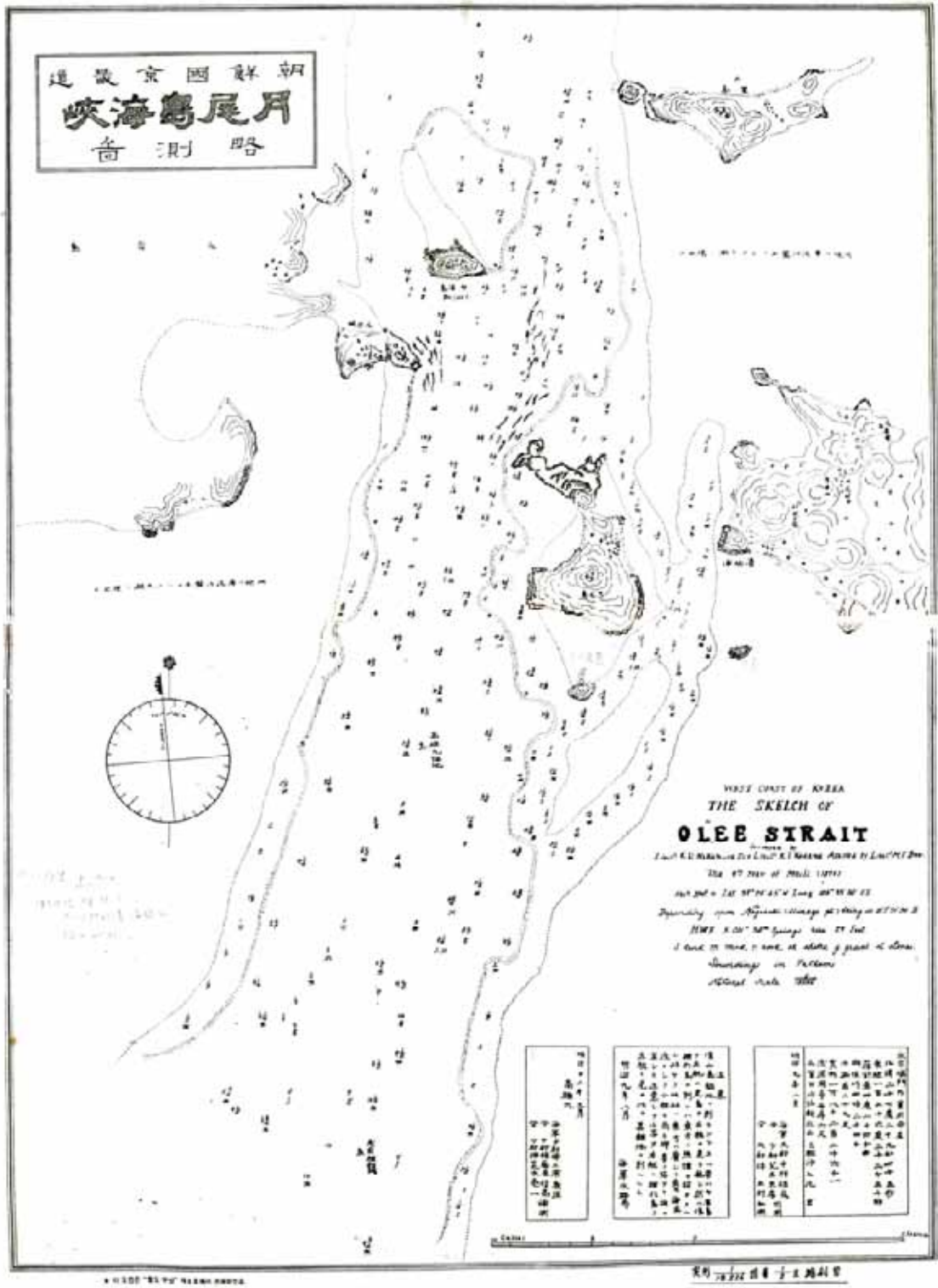
매립기본계획 수립 이후 매립규모와 용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매립타당성과 환경영향을 강조하고 매립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서만 매립을 허용하는 등 공공성을 중요시 하였다. 그러나 계획수립 이후에도 변경절차를 통해 매립지구가 추가되면서 매립면적은 크게 증가했다. 또한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 이외에도 농어촌정비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어촌·어항법, 항만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따라 해면매립이 추진되고 있다.

근대 개항 이후 매립을 통한 지형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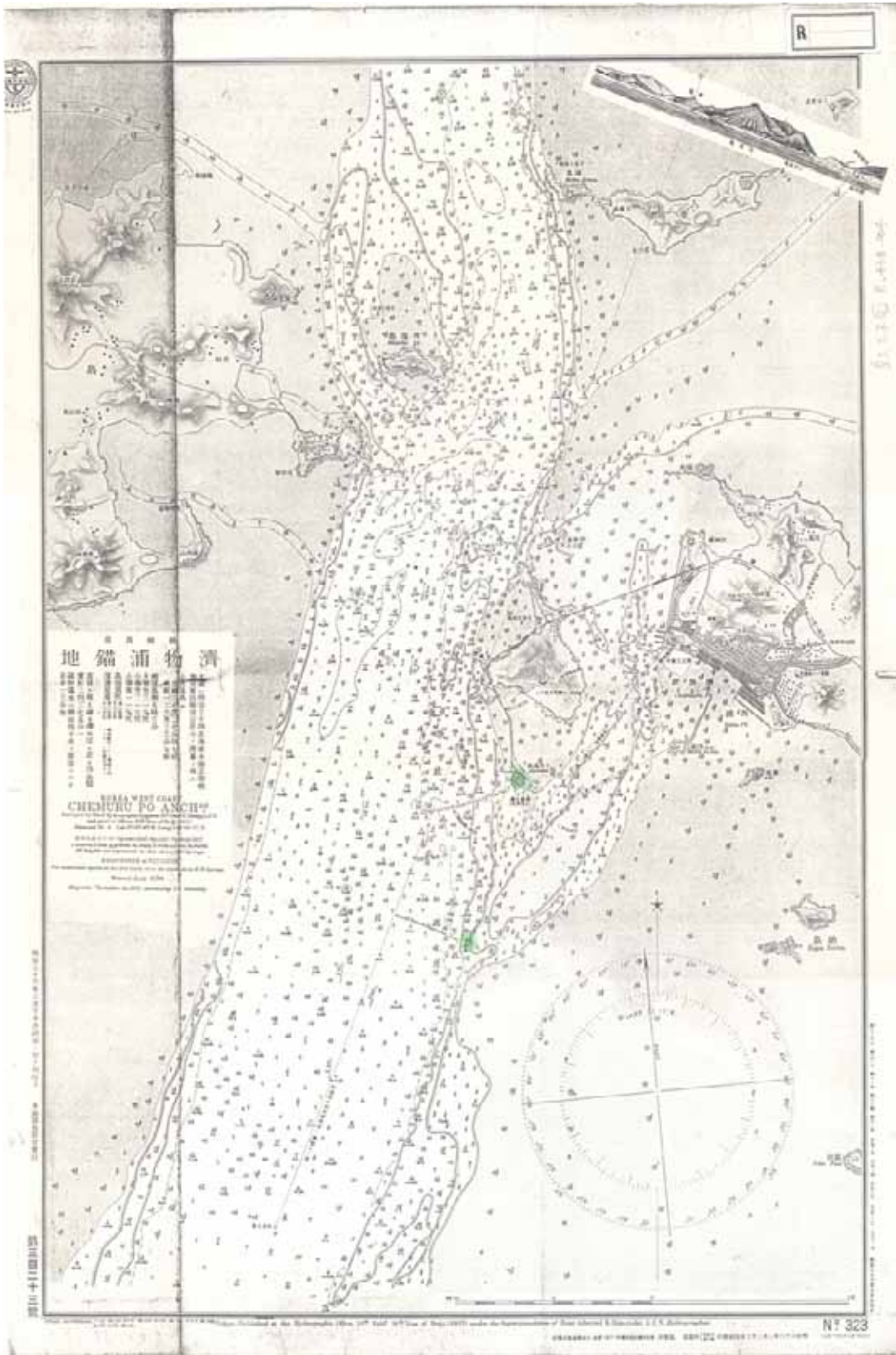


대조선 인천제물포 각국조계지도(大朝鮮仁川濟物浦各國租界地圖) 1888.7.2, 1/1,000
개항장의 각국 조계지 결정 도면으로 인천 최초의 도시계획도이다. 가구와 도로를 정연하게 구획하였고, 미터법 표기, 축적과 방위, 제작일자, 도면작성자가 표시된 서양식 제도기법이 처음 도입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의 자유공원, 도로망 등 인천 중구청 일원의 도시들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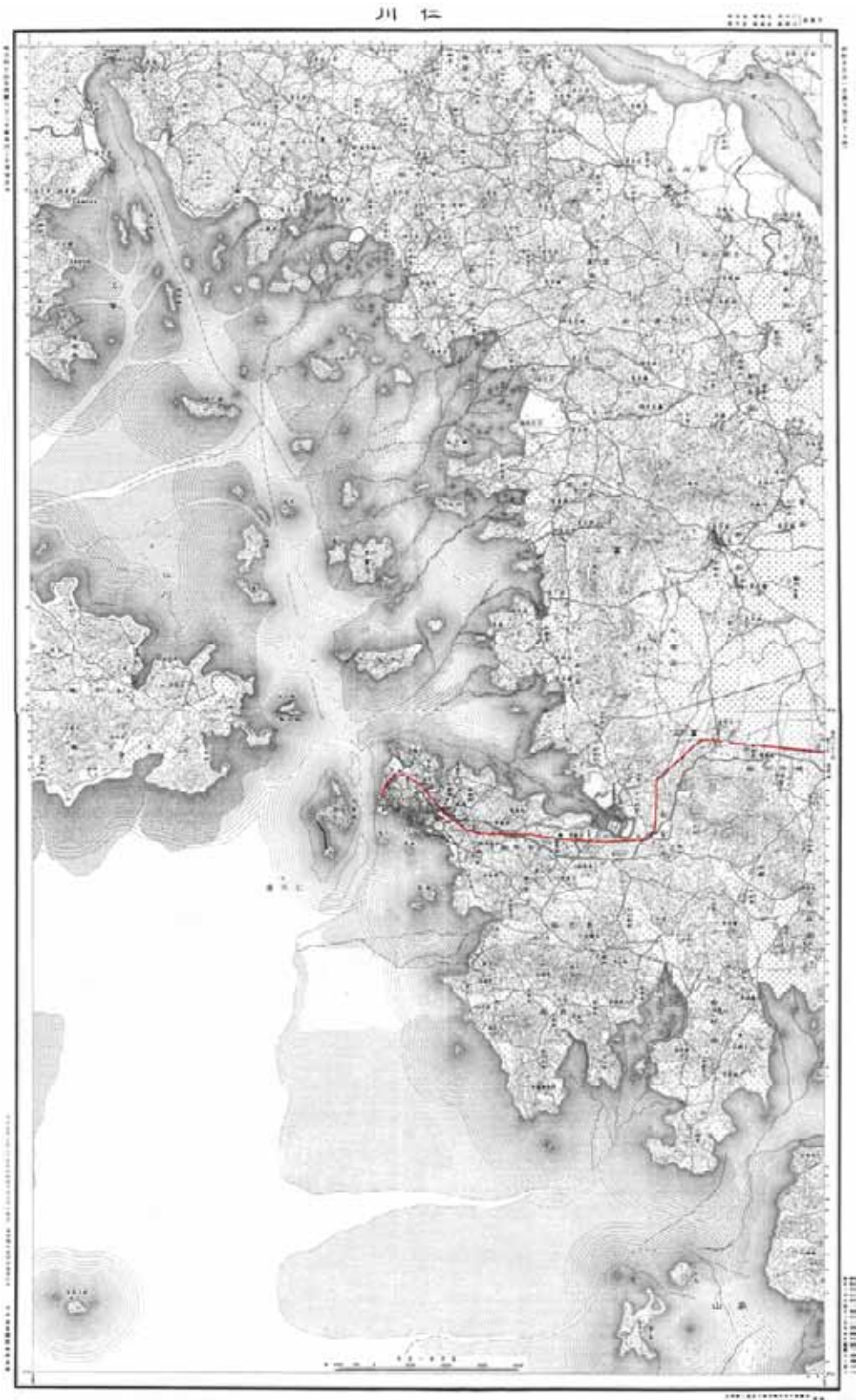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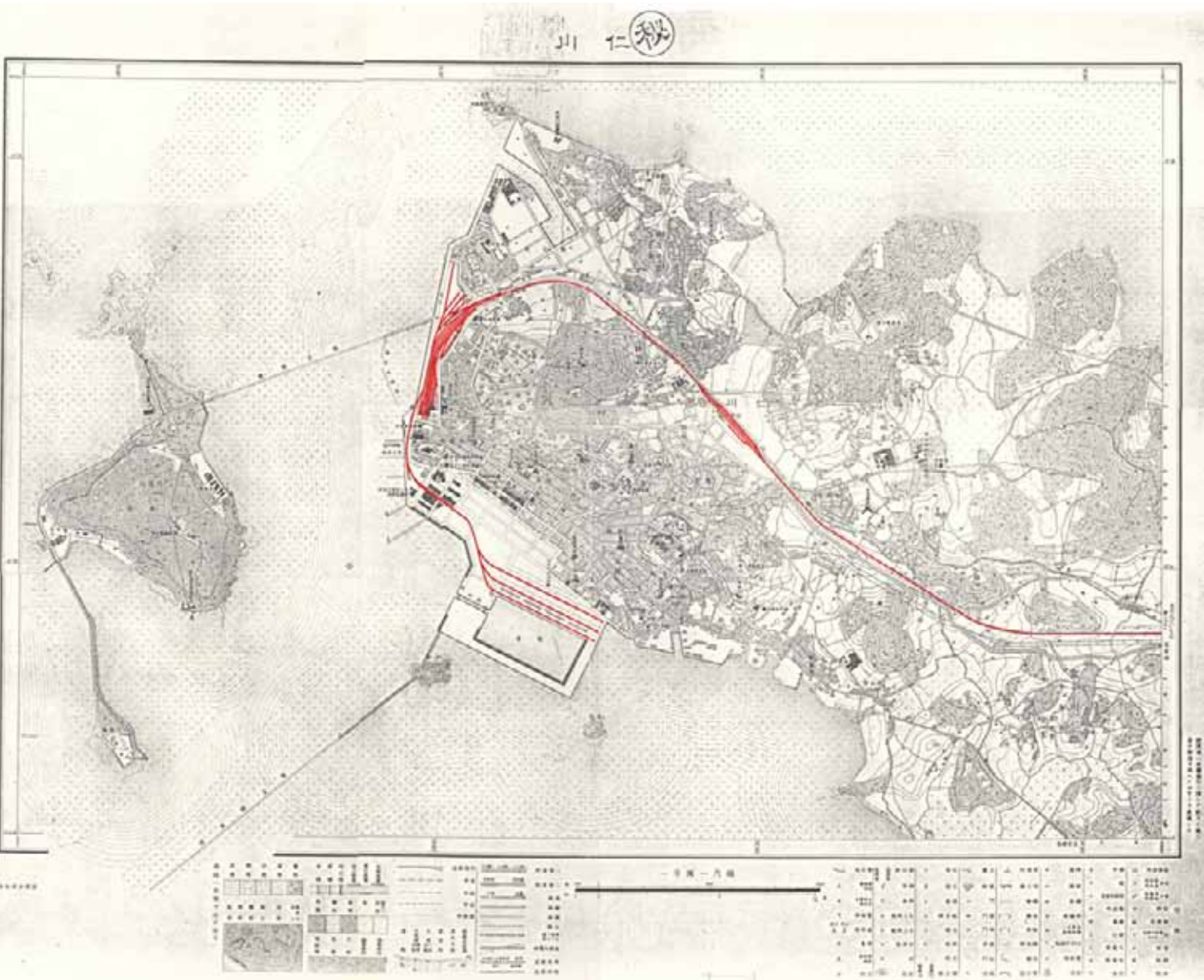
조선국 경기도 월미도해협 약측도(朝鮮國京畿道月尾島海峽略測圖) 1879.9 1/18,226
개항 전 일본해군이 측량한 해도로 월미도 주변 수심과 해양지질상태를 표기하고 있다. 지금의 월미도와 주변 섬, 제물포와 만석동의 원래 지형과 형태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 서안 제물포 모지(朝鮮西岸濟物浦錨地) 1903, 1/24,275
 1901년 일본 해군수로부가 측량한 해도로 수심과 해양지질 상태가 상세하게 표기되어 있고, 만조시간을 표시하고 있다. 경인철도와 인천 역이 나타나 있고, 조계지 전면 해면이 매립되기 시작하고 있다. 지금은 사라진 사도, 분도, 남도의 위치와 모양이 나타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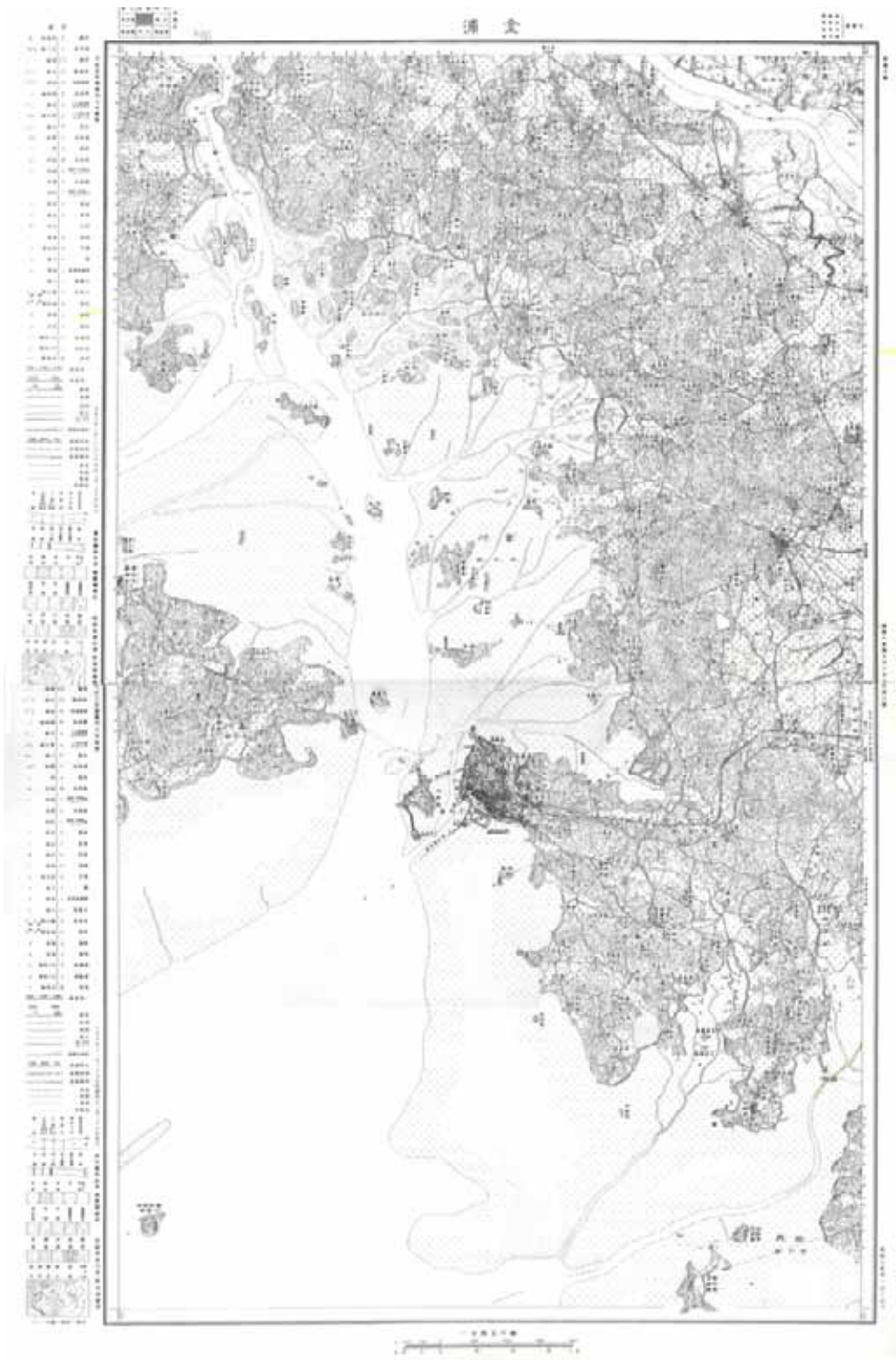


대일본제국 육지측량부(大日本帝國陸地測量部) 1910, 1/50,000
 한일합병 전 일본군의 개략 측량에 의해 만든 지형도로 최초의 근대식 지도이다. 인천앞바다 많은 섬들의 위치와 모양을 알 수 있고, 리아스식 긴 해안선을 이루고 있다. 옛 지형과 길이 표시되어 있고, 옛 지명이 표기되어 있다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916, 1/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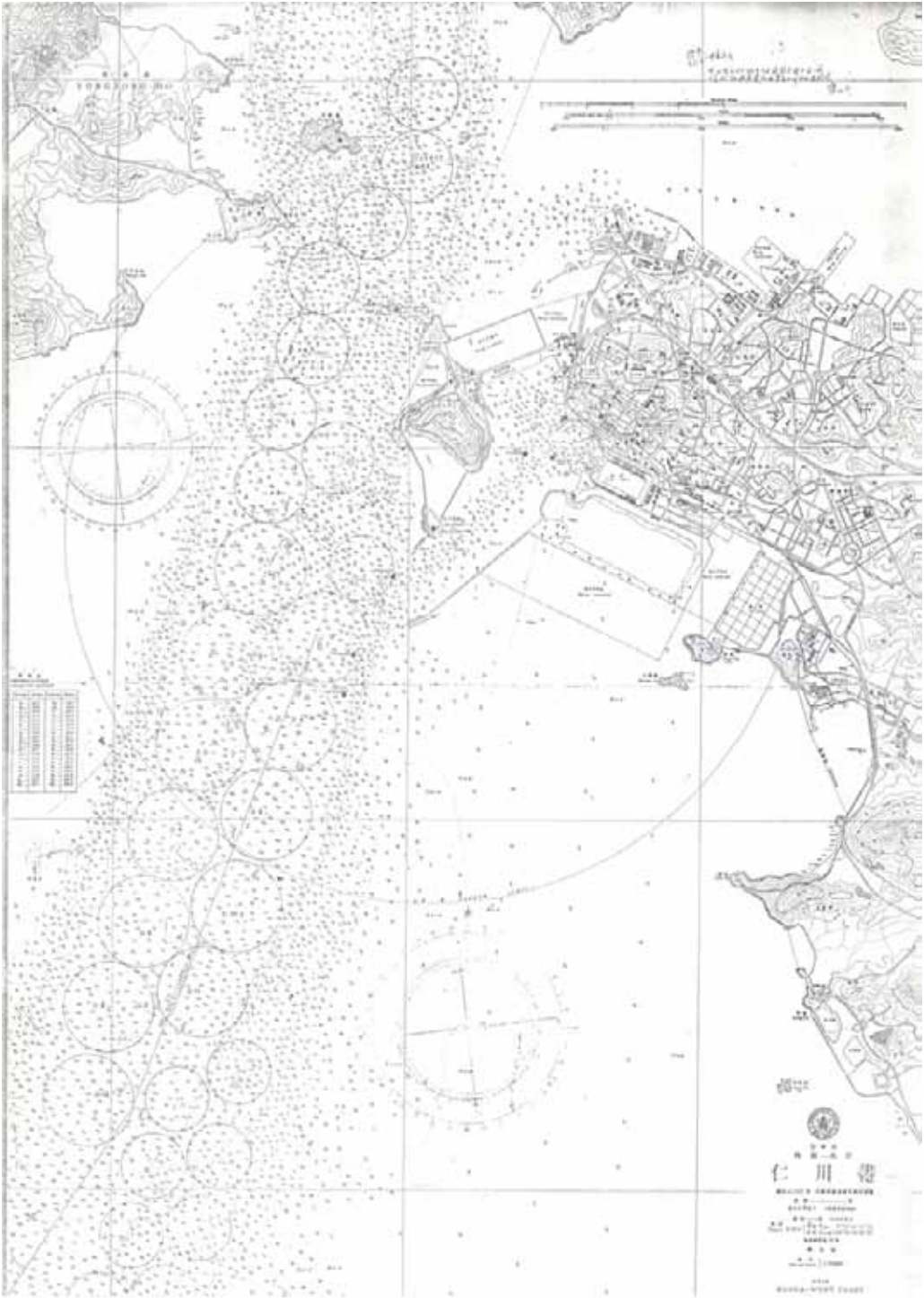
한일합병 이후 측량에 의한 지형도로 개항 이후 시가지의 개발과 해안경관의 변화를 알 수 있다. 지금의 내항 제1부두와 송현배수지, 경인철도 동인천역 등 시설과 만석동, 배다리 부근의 지형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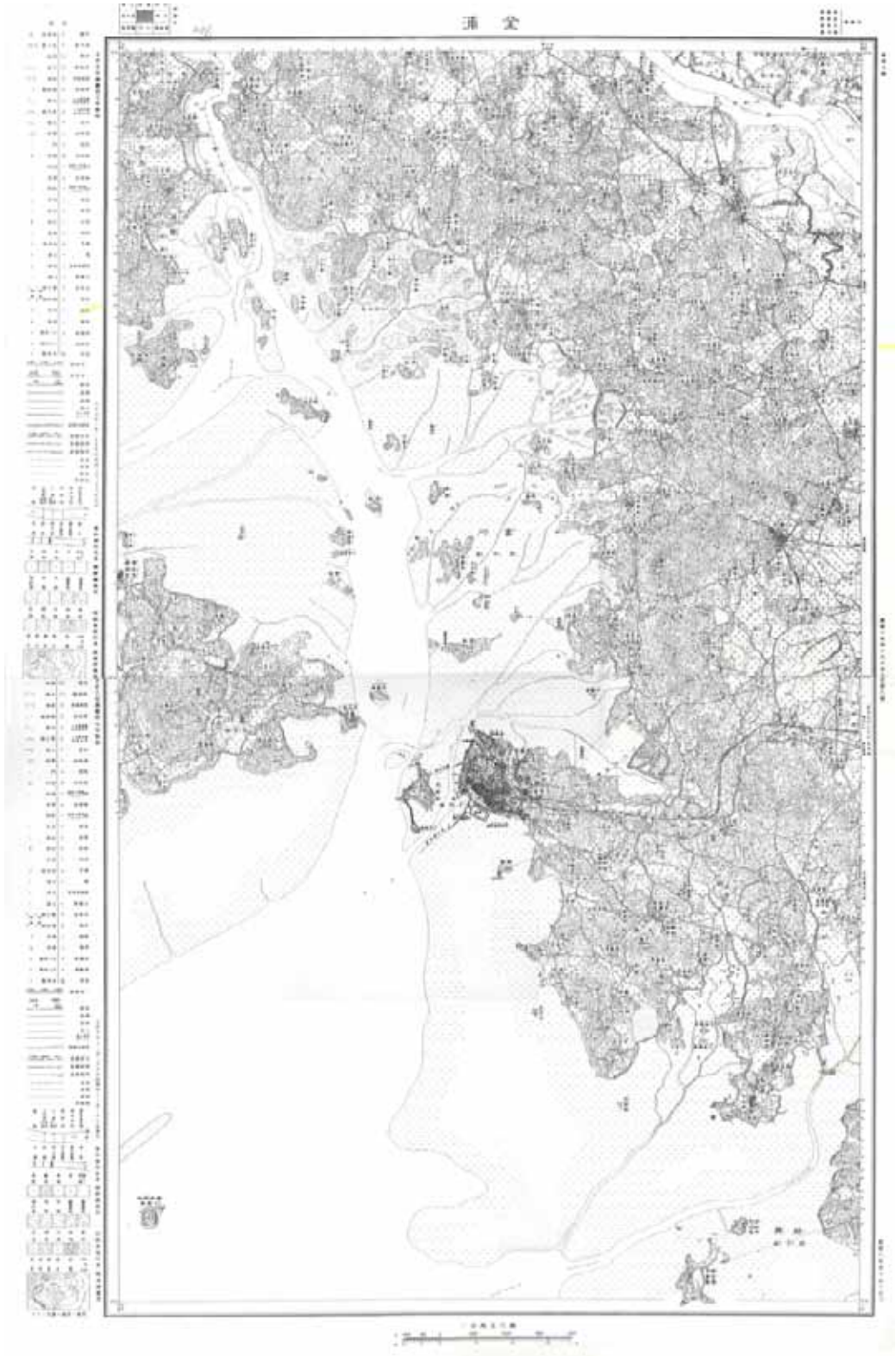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朝鮮總督府 陸地測量部) 1910, 1/50,000

1910년 지형도를 수정한 것으로 인천앞바다에 갯벌이 넓게 분포되어 있다. 지금의 제1부두가 축조된 것을 알 수 있다. 옛 지명에 일본어가 병기되어 있다.

경기도 시기의 지형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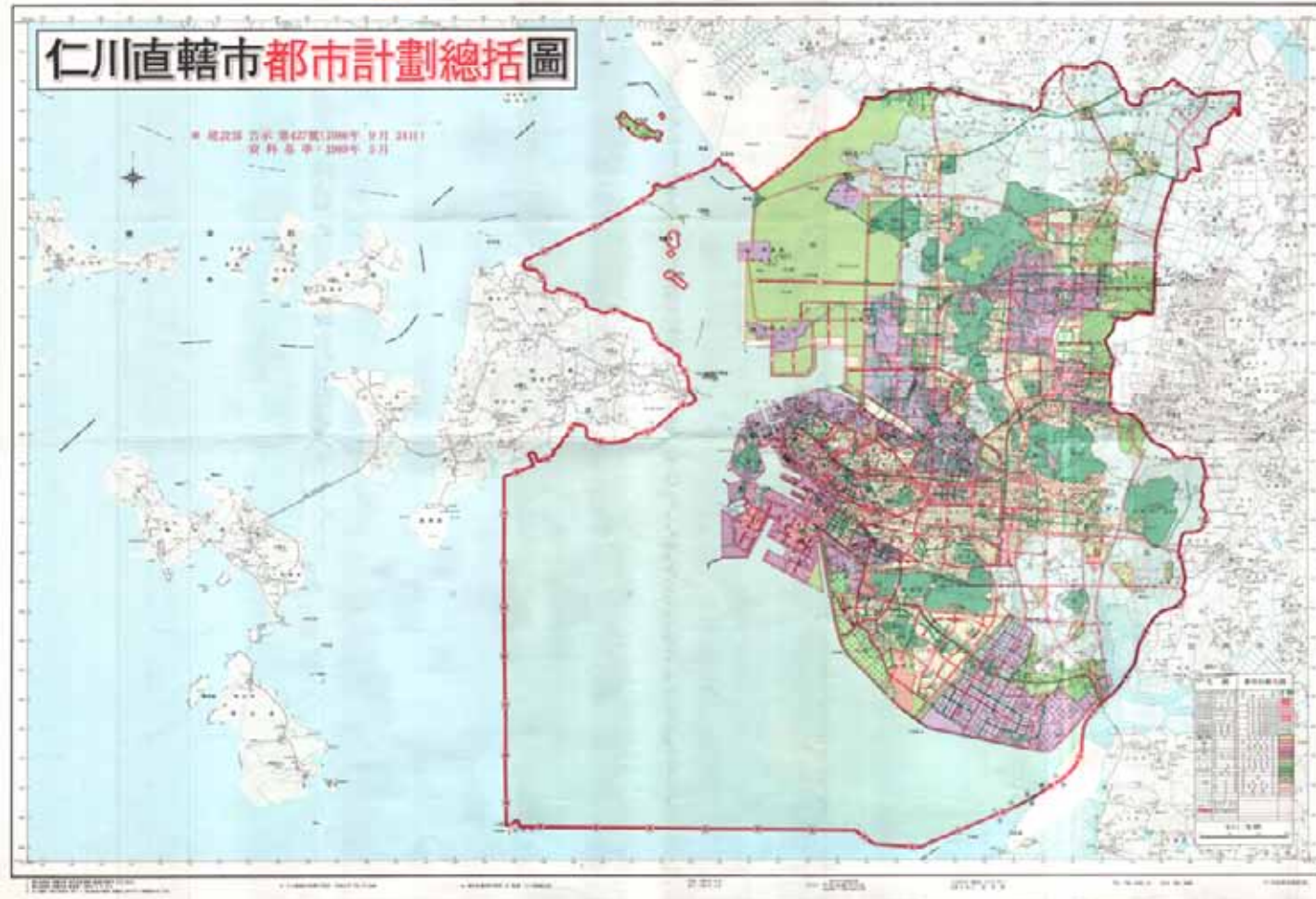
아세아 한국-서안 인천항(亞細亞 韓國-西岸仁川港) 1959, 1/15,000
대한민국 수로국이 설치되어 측량한 인천항 해도이다. 울도에서 월미도 서단을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선은 현재의 항로와 일치한다. 인천항 확장공사로 제2선거 당초 계획을 알 수 있다. 남도주변이 염전이었고, 인하대 정문앞이 해면으로 매립되었다.



지형도 1960, 1/50,000
지금의 청라경제자유구역은 60년대까지 넓은 갯벌지대였다. 인천 서북부 바다는 복잡한 해안선과 많은 섬들이 있었다. 제2선거 축항 공사는 중단되어 있고, 현재 남항은 갯벌상태였으며, 남동공단은 염전이였다.



지형도 1990, 1/50,000
약30여년 사이에 인천의 많은 갯벌이 매립되어 청라경제자유구역, 북성동, 연안동, 남항, 송도유원지, 남
동공단 등 새로운 토지가 만들어지고 해안선은 직선화되었다.



도시계획도 1991, 1/50,000
1989년 1월 옹진군 영종도·용유도, 김포군 계양면이 편입되어 행정구역이 1.5배 확장되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송도유원지 앞
신도시와 LNG생산기지는 없었다



지형도 2001, 1/50,000
1995년 3월 인천광역시가 되면서 행정구역은 약 3배로 확장되고, 2군·8구 행정체제 개편되었다.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과 연결하는 영종대교와 송도신도시 매립계획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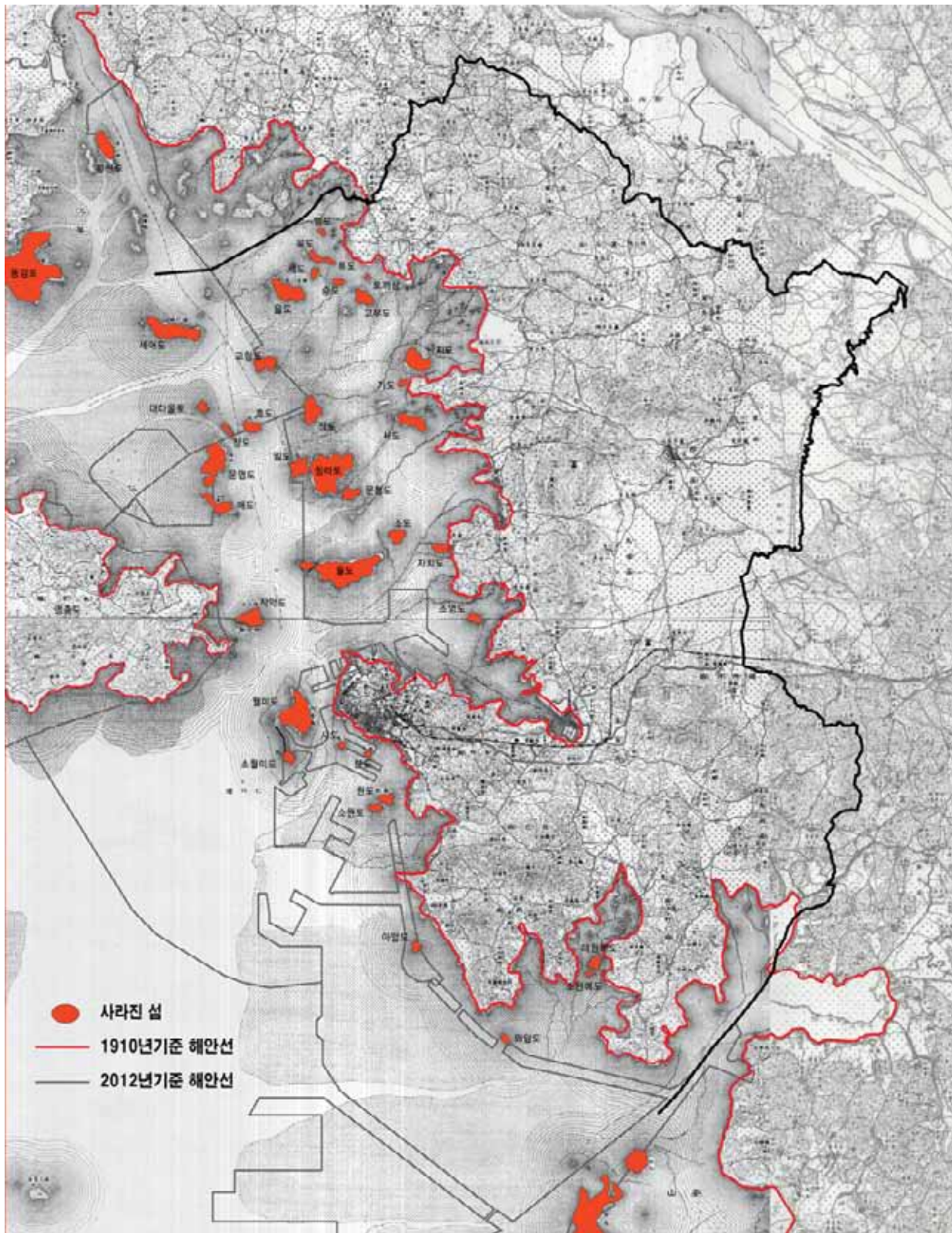
도시계획도 2010, 1/50,000
2020년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도이다. 2011년 도시지역 585,32㎢, 비도시지역 568,87㎢에 대한 용도지역을 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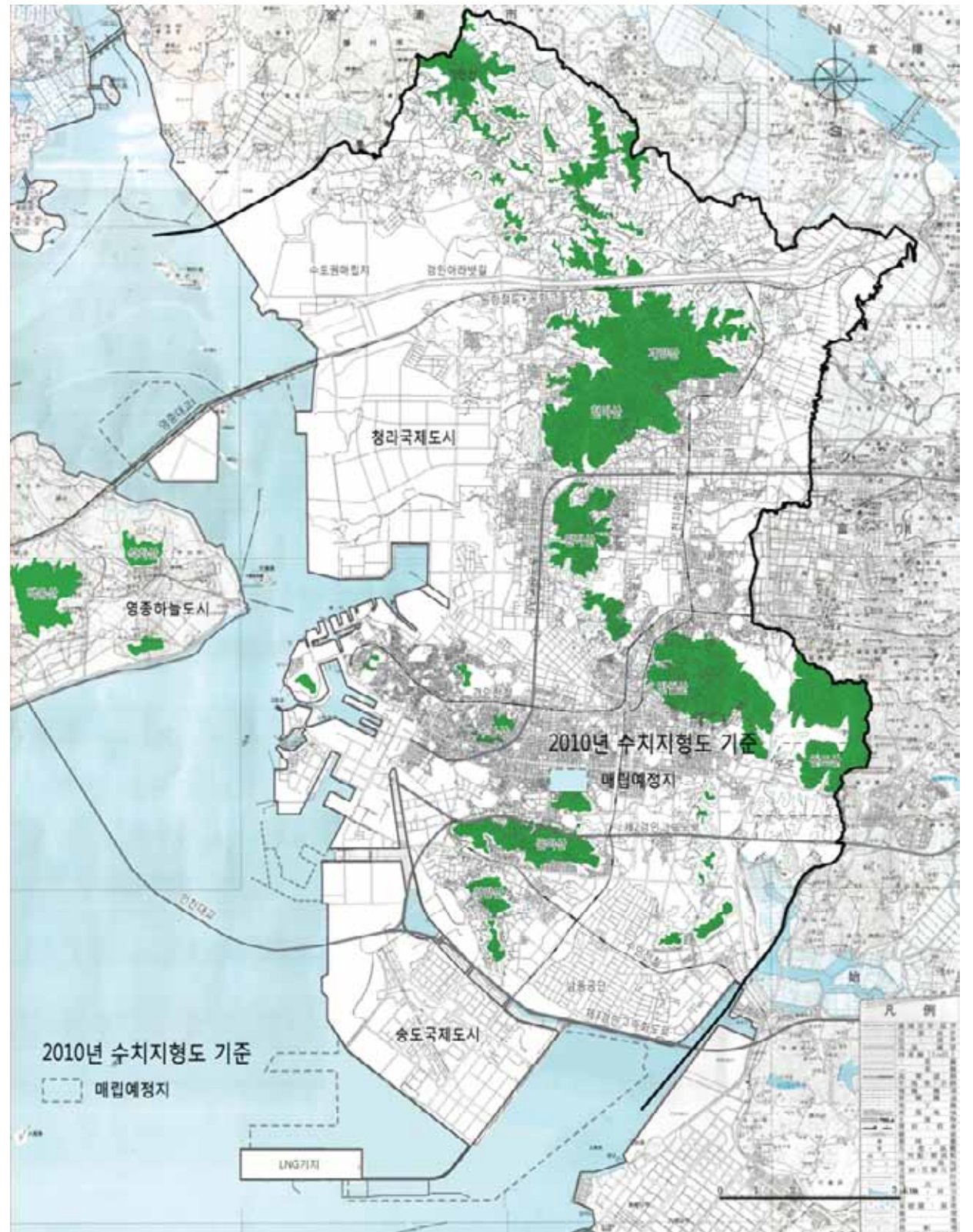
위성영상사진, 2003
영종도와 용유도 사이에 있었던 염전을 매립하여 인천국제공항이 건설되었다. 송도유원지 앞 동막갯벌을 매립하여 송도 경제자유구역을 조성하고 있고, 해상에 LNG 생산기지가 있다. 최단북측 안암도 주변을 매립하여 수도권쓰레기 매립지로 조성 중이다.



위성영상사진, 2012
군사용으로 사용되던 위성영상이 일반화되어 수문학·오염관리·지질학·기상·해양학과 토지의 이용관리 등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기술과 지식에 도움을 주고 있다. 청라경제자유구역이 시가지로 개발되고, 송도유원지 앞해면의 매립상태를 알 수 있다.



한 눈에 보는 인천 변화(비교도) : 사라진 섬 / 매립에 의한 해안선 변화
 1910년 지형도기준 당시의 인천 해안은 복잡한 리아스식 자연 해안선을 이루고 있고, 넓은 갯벌과 많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다.



2012년 현재 지형도기준 인천의 해안은 대규모 매립으로 인해 직선화된 인공해안선으로 바뀌고, 많은 섬들이 사라졌다. 갯벌을 매립한 새로운 토지는 1995년 3월 기준 육지부 면적의 약48%에 달한다. 현재 매립지에는 항만시설과 산업시설이 들어있고, 송도경제자유구역과 같이 대규모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사진 편집위원
사진 출처 및 협조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위원

■ 위원장	송 영 길	인천시장
■ 부위원장	조 명 우	행정부시장
■ 부위원장	김 병 옥	인천대 명예교수(국문학)
■ 당연직 위원	신 동 수	시의회 문화복지위원
	조 현 석	문화관광체육국장 / 전) 나금환, 조동암, 전상주 국장
■ 위촉위원	김 병 옥	인천대 명예교수(국문학)
	정 요 일	서강대 명예교수(한문학)
	조 우 성	인천일보 주필(향토사)
	이 명 숙	인천시립박물관 관장
	김 윤 식	향토사(국문학 / 시인)
	이 원 섭	가천대 교수(신문방송)
	서 영 대	인하대 교수(사학)
	김 영 환	한겨레신문 기자(신문방송)
	이 영 호	인하대 교수(사학)
	이 윤 희	인천대 교수(사회학)
	박 도 화	문화재청 감정위원(미술사)
	박 은 경	인하대 교수(사학)
	윤 승 준	인하대 교수(서양사)
	이 민 우	부개여고 교사(역사)
	장 인 우	인천대 교수(복식사)
	강 석 화	경인교대 교수(사학)
	노 영 돈	인천대 교수(법학)
	이 동 후	인천대 교수(신문방송)
	이 준 한	인천대 교수(정치학)
	백 승 국	인하대 교수(문화콘텐츠)
	장 정 아	인천대 교수(문화인류학)
■ 간 사	류 치 현	문화재과 과장 / 전) 김남윤 과장
■ 서 기	왕 진 모	문화재정책팀장 / 전) 김동훈, 김명성 팀장
■ 전문위원	강 덕 우	(사학 / 문학박사)
	강 옥 엽	(사학 / 문학박사)

인천정명600년기념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편집위원

제1권『선구지 인천의 근대 풍경』(1883~1945)

- 개 관 | 강옥엽(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 근대 문화의 수용과 변용(1883~1910) | 조우성(시사편찬위원)
- 굴절된 근대 일제강점기(1910~1945) | 김윤식(시사편찬위원)
- 광고와 사진업으로 보는 인천 | 강옥엽, 강덕우(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제2권『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 변화』(1945~2013)

- 개 관 | 강덕우(시사편찬위원회 전문위원)
- 전진을 향한 심 없는 도전, 또 한번의 도약을 위해(1945~1995) | 유동현(굿모닝 인천 편집장)
- 동북아의 중심도시, 새로운 도약(1995~2013) | 김성환, 홍승훈(사진작가)
- 지형의 변화와 지도로 보는 인천 | 김용하(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사진 출처 및 협조

인천광역시 사진으로 보는 인천 개항100년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역사자료관 인천광역시립박물관 한국이민사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인천상공회의소 인천개항박물관 검단선사박물관 인천발전연구원 화도진도서관 이종화(사진작가) 최성연(시인) 오종원(전 인천일보 논설위원) 신용석(인천개항박물관 명예관장) 조우성(인천일보 주필) 이원규(소설가) 손장원(재능대 교수) 공정재(전 인하대 교수) 런던화보 뉴스 하퍼즈 위클리 폴리어스 코리아 컷 인 타임 르 몽드 일뤼스트레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 밀리터리 히스토리	짜장면박물관 미국철도박물관 국립중앙도서관 관세청 중구청 강화군 웅진군 규장각 서구문화원 내리교회 인천창영초등학교 눈빛출판사 고서숙(인천시국제자문관) 이종규(연희교회 장로) 김용하(인천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이종복(황금가지 대표) 유동현(굿모닝인천 편집장) 홍승훈(사진작가) 김성환(사진작가) 1억인의 소화사 한국전기·통신100년사 인천부사 인하총동창회 50년사 강화의 어제와 오늘 변화하는 인천의 도시모습
---	--

인천정명600년기념

사진으로 보는 인천 시사 ❷

끊임없는 도전, 인천의 도시변화(1945~2013)

- | 발행일 | 2013. 10
- | 발 행 | 인천광역시
- | 발행처 |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 39번길74(송학동 1가 2-2)
T. 032)440-8382, 8383
- | 편집·인쇄 | 중앙프린텍 T.032)883-8195
- | ISBN | 978-89-93590-78-4

*본 출판물의 저작권은 인천광역시에 있습니다.